

한국 사회에서의 에너지 전환 : 구례 지역 양수발전소 추진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신유정¹, 윤주옥², 이현진³, 화소영⁴, 최규혜⁵ [지리산 농촌 주민 연구자들]
[¹독립연구자, ²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공동대표, ³원광대/강사, ⁴창작예술가,
⁵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사회적경제팀장]

1. 서론

이 연구는 작은 시골 마을에 ‘신재생’을 표방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 시작될 때, 당사자인 주민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경험하는지를 주민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을 둘러싼 많은 말들 - 에너지 전환이나 신재생 에너지, 지역 소멸 등과 같은 - 은 정작 사람들의 미시적인 일상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어떻게 영향받는지 조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앞으로의 사업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이들 역시 이들 주민들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시선에서 과정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실제로 구현되는지 또 그 함의는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양수댐 건설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 계족산 일대라는 구체적 장소에 자리 잡은 이들의 일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댐 건설과 건설 이후의 삶까지를 장기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사진 1. 군청 앞 1인 시위 (@ 지리산 사람들)

2023년 12월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계족산 일대가 양수발전소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사업 규모는 1조 4천억 원, 준공까지는 약 10여 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한다. 투입되는 시간과 돈의 규모도 엄청난 것이지만 이 사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의 사진에서처럼, 군청은 자축 현수막을 내걸며 사업의 예산 규모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그 앞에서 반대하는 군민들이 양수댐(기타 난개발 사업 포함)을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핏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말들은 ‘1조 4천억 원’ ‘신재생’ ‘숲이 사라진다’ ‘생태계 파괴’ 등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둘러싼 공론장에서의 여러 당위들과 거대 담론, 그리고 압도적인 예산 금액 등을 모두 벗겨냈을 때, 과연 이 댐의 건설과정 전반의 당사자인 각 마을 주민들은 어떤 이유로 사업을 동의·부동의하며 어떠한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는지, 정부나 중부발전 등 사업 주체들이 말하는 기대 이익과 효과들은 실제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등이 궁금해진다. 구체적인 연구목적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목적 및 연구 질문

첫째, 지역주민의 경험과 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미시적 수준에서의 접근을 통해 에너지 사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문화적 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이해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지방 소멸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세심하게 담아내고자 한다.

둘째, 동의 또는 부동의의 각 입장들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결정되었는지를 이해한다. 더불어, 이러한 결정 과정에 개입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힘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주민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러한 입장은 어떠한 고려 속에서 결정된 것인가.
2. 1이 가지는 함의는 어떤 것인가.
3. (미시적 층위에서) 양수댐 사업 추진은 어떻게 가능했나.

3의 질문은 지역, 마을 단위에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형성과 실행의 동학을 거칠게나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사례를 통해 2024년 현재의 한국 사회가 에너지 전환과 지방 소멸이라는 중요한 맥락 위에서 어떠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지를 성찰하되, 그 성찰의 중심에 사람들의 삶을 둔 채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정책 실천 과정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및 글의 구성

이 연구는 인류학적 질적 연구방법 중 아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수행하였고,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 심의를 받았다.

- 심층면접: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혹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입장이 없는 당사자 주민들 총 14명과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 없이 열려진(open-ended) 문답으로 진행하였으며, 양수댐과 관련한 개별 주민들의 기대 혹은 우려, 사업자 선정 이전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개인적 경험과 달라진 사회적 관계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후 전사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 인용 시 주민들의 이름은 무작위 알파벳 이니셜로 표기하였으며,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은 연구자가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가공하였다.
- 담론분석: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멸 등의 거대 담론들 사이에서 이 사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담론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양수댐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각종 담론 자료들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자료를 수집해야 할 이해관계자들로는, 구례군, 국토교통부, 중부발전, 환경부, 기획재정부, 지역 내 토건업자들, 환경단체, 지역 시민사회 등이 해당된다. 이들의 입장을 담고 있는 담론자료로 중앙 및 지역 내 언론 기사들, 중앙부처 및 구례군청 발 보도자료, 양수댐과 관련해 지역 내에 게시된 현수막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주민들과의 간담회 영상, 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발 보도자료와 선전문 등을 포함했다.

전체적인 연구결과는 논문 형식의 이 결과보고서 외에 별첨한 답사보고서로 정리되었다. 양수발전소 예정인 홍천군, 이미 건설 후 가동 중인 산청군, 그리고 계족산 상부댐 예정지를 답사하였고 이 중 홍천, 산청 지역 답사보고서를 보고서 말미에 첨부하였다.

3) 논의의 틀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파악하고 알게 된 사실들을 크게 ‘장소’와 ‘좋은 삶’¹⁾이라는 두 가지 틀 안에서 정리하였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좋은 삶(아리스토텔레스, 2013)은 경제적 조건, 친밀함, 사회적 관계, 근접성 등의 여러 조건들을 경유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 우정(philia) - 속에서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좋은 삶이란 이성의 활동을 통해 탁월함을 이끌어내고 발휘하는 삶이며 우정은 그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그는 좋은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그 좋은 관계가 바로 우정으로 지칭된다. 달리 말해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서이며, 이때 우정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기능인 생각과 말을 나누는 것이고 인간의 고유한 사회성을 완성시키는 즐거움으로 논의된다. 인간은 ‘진정한 자아’와 함께 살아가고 각자의 잠재적 능력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우정은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정에 주목할 때, 또 하나 눈여겨 봐야할 것이 ‘공간(장소)’²⁾의 문제이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이 사람은 사람을 - 혹은 비인간행위자를 - 사귈 수는 없다. 좋은 삶을 위한 ‘우정’이 친밀함, 호혜적 관계, 공간적 근접성 등의 전제하에 확보될 수 있다고 한 벌랜트(2024)의 이야기를 참조하자. 장소는 바로 우정을 성취하기 위해 친밀함을 나누는 구체적 경험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벌랜트가 말한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은 사례를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그는 위태로운 사회적 구조적 조건들로 인해 일상화된 위기 속에서는 익숙한 세계의 현상 유지 자체만으로도 애착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다. 일상을 유지하는(유지하기만 하는) 여러 방식들이 주체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만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로막는 역설적 환상에 구속되고 또 그 환상이 대면하는 낙관에 구속되는 이중구속(double binding)”으로 작동하며(벌랜트 2024, p. 100),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사람들이 매달리도록 만든다. 벌랜트가 분석한 사례에서 사람들이 바랐던 좋은 삶은 지속적으로 유예되고 말았으나, 향후 양수담 건설 과정과 그 이후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다면 이 사례에서 주민들이 바랐던 ‘좋은 삶’은 성취되는지 혹은 유예되고 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추상적 기하학적 개념으로서의 ‘공간(espace)’ 그리고 인간이 오감으로 경험하는 현상으로서의 ‘장소(lieu)’를 구분하기로 하자(오제 2017 p. 99). 장소들은 의미를 기입하는 곳이며(p. 71), 이곳에서 관계들이 재구성된다(p. 98). 그러므로 장소는 정체성과 관련되며 관계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p. 97). 요컨대, 장소란 생물학적 인간이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차원의 의미들이 축적된 공간이며(부산대 2013 p. 89), 친밀함의 경험을 제공하는 토대가 됨과 동시에 몸 - 오감 - 에 기억되는 매우 중요한 매개이자 장이라는 함의를 지닌다(p. 41). 이러한 장으로서의 ‘장소’에서, 사람들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할 뿐 아니라 이 공간 속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와 경험, 기억 등이 보태어질 때라야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좋은 삶’이 성취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좋은 삶을 논의할 때 필요한, 근접성과 우정이라는 큰 열개 안에서 연구결과를 정리하되, 근접성이라는 주제를 특히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장소라는 구분 속에서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단,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 논의를 가져오되, 그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또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 비인간행위자까지로 확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연구자들 역시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과 전제를 그대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경제적, 사회적인 가치가 투영된 정동적 애착으로서의 ‘좋은 삶’(벌랜트 2024)에 보다 무게를 두고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더불어, 본격적으로 비인간행위자와의 연결망이란 주제를 검토하지는 않더라도 라투르(Latour 1987)의 이론에 대한 고려 속에서 우정의 개념을 보다 넓게 다룰 것이다.

1) ‘좋은 삶’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되었고 경제학자 케인스에 의해 주목을 받았던 행복에 관한 또 다른 관점이되, 주관적인 감정으로서의 행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2) 물론 이 장소라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인 의미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친밀한 공중’들이 나누는 우정을 상상해보면, 이때의 장소는 물리적 단위를 넘어서 좀 더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게다가 친밀함이 꼭 물리적 근접성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구체적인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의 근접성이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하기로 한다.

2. 본론

양수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을 크게 세 개의 열개로 묶을 수 있다. 정부와 중부발전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이들, 사업에 찬성하며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 마지막으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우리의 연구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이 각각의 입장들은 각자의 ‘좋은 삶’이 무엇이라고 전제하고 움직이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론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당사자 마을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 동기와 맥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의 정동적 애착 - 좋은 삶에 대한 열망 - 이 어떤 대상에게로 향해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이 거대한 사업의 미시적 층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다 엄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좋은 삶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행위자들’이란 전제하에 논의된다. 그런 맥락에서,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 또는 기억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장소의 상실이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의 대상지로서의 추상적 ‘공간’과 주민들의 삶의 현장으로서의 ‘장소’ 사이의 간극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양수댐 사업을 추진해 왔던 이들 중 자신의 마을 위로 지나가는 사성암 케이블카 사업은 반대하는 이의 사례를 통해, 공간과 장소의 간극이 어떠한지, 동일한 사람에게조차 사안에 따라 이러한 간극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수댐 및 에너지 전환 관련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체인 국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다루고자 한다. 국가를 어떤 존재로 상정하느냐,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느냐의 문제는 해당 사업을 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이후의 유사한 많은 사례들에서도,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서 우리 모두가 당사자 주민들을 보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목소리에 경청하게 되길 기대한다.

1) 좋은 삶에 대한 열망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측면은 ‘좋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다만 찬성한 주민들과 반대한 주민들이 상정하고 있는 ‘좋은 삶’은 사뭇 다르게 정의된다.

(1) 동의하는 이들의 ‘좋은 삶’

조사를 시작하기 전, 외부자인 연구자는 정부, 지자체, 중부발전 등이 제시한 보상안 등 여러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의 또는 부동의를 결정하는 주된 이유일 것이라 짐작했었다. 그러나 정작 면접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주민들이 토지 등의 보상안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조금씩 다르다는 것, 혹 이러한 보상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인터뷰 참조).

주민 Z : 사람들은 읍내에 아파트 해준다 그런 얘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쉽사리 안 돼 이제 말은 옮겨준다 해도. 좀 떨어지게 이 동네를 H 마을처럼 이 동네를 잡아준 갑드만. 따로 이렇게 아파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모르겠어. 근데 그건 닥쳐봐야 알 것 같아(2024년 7월).

게다가 댐이 들어서면 마을 차원에서 열게 되는 핵심적인 유익으로 진입도로 확장과 상하수도 설치 두 가지가 제시되었고, 주민들 역시 개인적 토지보상 등과 별개로 도로와 상하수도가 들어온다는 점을 “댐이 들어와 좋아지는 것”으로 꼽았으나 이후 진행된 면접에서 이 두 가지가 현실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드러냈다(인터뷰 참조).

주민 Z : 상하수도 해준다 하더라고. 상하수도.

연구자: 상하수도. 근데 상하수도 안 돼서 불편하신 게 혹시 어떤 게 있으셨어요?

주민 Z : 불편한 것도 없어 다 직진은 수도가 다 들어온 게. 다 거시기를 파갔고.

(중략)

주민 Z : (도로가 확장되면) 시끄럽기는 시끄러울 것 같아. 사람 많이 드나들어 좋을 리는 없어. 여기는 좀 골짜기가 좀 오래돼 갖고 좀 좋은데 공기도 맑고 좋은데, 지금은 오염이 돼서. 못도랑이, 물이 오염이 돼 갖고 S (마을 이름) 같은 경우에도 구석구석 산 산 저 저거 이로 구석구석 집을 지어갖고 사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

사업 예정지인 문척면 J 마을의 경우, 읍내로부터 거리로는 8 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편도 1차선의 산골짜기 길을 따라 들어와야 하는 데다 도로가 인근 도시인 순천, 남원, 광양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을이 골짜기 끝자락으로 막혀있어 고립되고 외진 곳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시설도 이 마을에는 설치되었던 적이 없고, 마을주민들은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한다. 산에서 차, 나물 등을 채집해 팔거나 마을을 관통하는 개울 주변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등 전형적인 농산촌 부락이며 C 성의 집성촌이기도 하다. 약 20년 전 이사 온 세 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친족 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수십 년간 한곳에서 함께 살아온 고령의 인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 이 마을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삶의 기반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정확한 보상의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동의서에 서명을 한 이유를 묻자, 한 주민은 “어찌꺼인가. 다 했다고 한다. 찌그하고 나하고, 저쪽 끄터리 집하고만 안 했다고 한다 어찌꺼인가. 남들 다 하고.”라고 답했다. 요컨대, 이들은 양수발전소의 당위나 경제적 이해관계 그 자체보다 자신의 동의·부동의 여부로 인해 마을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양수발전소를 하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묻자 주민들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연구자: 좋은 점은 무엇이 좋대요?

주민 Q: **조용히 이제 사는 것이 그 좋은 점이지. 데모 안 하고.**

이 대답은 짧지만 유의미하다. 마을 주민들이 사업지가 결정되기 전인 2023년 7월 충남에 올라가 반대 집회까지 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입장 변화는 매우 극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댐 건설 공사와 그 효과로 인한 불편함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사회적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간절함과 이 상태 - 관계에 관한 한 - 그대로를 유지하고픈 동기가 잘 드러나는 대답이다. 현상 유지 자체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판단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즉, 발전소 사업에 동의했던 이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현재의 ‘좋은 삶’을 현상 유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 정동적 애착(벌렌트 2024)의 발로로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좋은 삶’

그렇다면 동의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하는 이들은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동의하는 주민들과 반대운동을 이끄는 J 씨 가족은 예전보다 약간 곱끄러운 듯하지만 여전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었다. 다른 주민들은 J 씨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 J 씨는 주변 이웃들과 변함없이 왕래하며 지냈다. 이들에게도 이 마을에서의 평온한 사회적 삶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지점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동의하지 않은 가구들의 주된 생업 수단이 댐 건설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계족산’이라는 포괄적 이름으로 지칭되는 비인간행위자들과 맺는 관계가 다른 주민들과는 매우 달랐다는 것이다.

첫째, J 씨 가족은 대나무를 키워 죽염을 만들어 판매하고, H 씨는 고사리를 끊어 팔면서 하늘과 땅의 기운과 감응하며 도 닭는 수행을 하는 ‘도사’라는 직업을 함께 갖고 있었다. 현재의 댐 건설 계획에 따르면, J 씨네 대나무밭은 수몰지에 포함되지 않고 바로 그 앞까지 물이 채워지게 되어 대나무밭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수몰로 인한 보상은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365일 물이 가뉘져

있게 되니 인근 지역의 습도가 높아져 죽염 생산에 차질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H 씨 역시 조용하고 훼손되지 않는 자연 속에서 수련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댐을 짓는다고 굴착하고 발파하는 등 십 년간 공사가 진행된다면 해오던 대로 수행을 하기가 불가능한 처지다. 비단 이들의 사례에서만 아니라 홍천 지역 양수 댐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운동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별첨 답사보고서 참조). 주민들의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잣 주산지가 댐 건설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지역 내 반대여론에 강한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인한 생업 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동기가 된다.

둘째, 댐 건설에 찬성한 주민들이 다른 마을주민들과 맺어온 사회적 관계의 밀도만큼이나 이들이 계족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의 비인간행위자와 맺는 관계가 깊고 두텁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물론 생업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도 이러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J 씨의 경우 한국의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교육받은 경험 없이 계족산 일대에서 홈스쿨링을 하며 자랐다. 은유적인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댐 사업 예정지인 계족산 일대가 그의 고향이고 그의 학교였다. 태어나서 자라고 보고 배운 지식과 사귄 모든 관계가 계족산과 마을 앞 개울 등지에 오가거나 정주하는 비인간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주민 K :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들이 여기가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여기가 이제 학교고 여기가 다 진짜 삶에 이게 다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엄마들 입장으로서, 우리 아들의 고향인데 지켜줘야죠. 그게 엄마 역할이잖아.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여기서 태어나서 진짜 나가지 않고 32살이잖아요.

주민 J : 그리고 그 계곡물이 진짜 멋있었어요. 계곡이 그냥 바위마다 이름³⁾ 다 지어놨거든요. 아이스크림 바위 딸기 바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산에서 그때 저 산에서 오리 키우다가 오리 가둬놓고 밤에 내려왔었어요. 근데 반딧불이가... 보통 요새 하루살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반딧불이가 날아다녔어요.

(3) '좋은 삶'과 시골의 정치 동학이 만날 때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주민들은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각자가 성취해 왔던 사회적 관계나 어떤 대상과의 친밀함 등을 토대로 하여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정동적 애착 - 좋은삶에 대한 열망 - 속에서 사안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가볍게라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지점은, 이러한 이들의 정동이 소규모 농촌 지자체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흔히 도식적으로 관찰되는 - 주민 참여의 '형식'을 완성하여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추진력을 얻는 형태 - 정치적 동력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애초에 반대 입장을 취했던 이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된 계기는 농협에 다니는 마을 노인회장의 아들의 적극적인 독려였던 것으로 보인다(인터뷰 참조). 세종시에 올라가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는 노인회장 본인도 발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참여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그의 아들은 동의서를 들고 와 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가가호호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민 H : 마을 분들도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누가, 이 동네 사는 누가 이제 서류를 다 받아버렸는가 봐.

3) 사물에 붙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김현경(2020, p.33)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살린즈(1991)를 인용해 사람/물건의 대립 속에서 이름이 없는 물건은 '소비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이름과 얼굴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세계에 "의인화되어" 현상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논의를 참고하면, 이 사례에서 아이스크림 바위이나 딸기 바위라고 이름을 부여받은 이 바위들은 사람/물건의 대립항에서 물건이라기보다 '사람'에 가까운 - 현상하면서 관계 맺는 - 그 무엇이 된다.

연구자: 이장님이요?

주민 H : 이장이 아니고. 노인 회장님. 노인회장이 그분 아들, 자제분이. 그게 이제 **원주민**이고 하니까 안면에서. 이제 다 찬성으로 했는가 봐. 처음에는 이제 반대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뭐 싹 돌면서 따로 돌면서 뭐야 그 동의서를 다 받아버렸는가 봐. 동의서를.

주민 K : 그 뒤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아들이나 또 친척들이 이제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그냥 또 여기가 다 친족 관계거든. 그러니까 한 명이 설득되고 한 명이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가지고 다 이제 그냥. 여기서도 작은 어머니는 다 작은 어머니고 친척이고 이래 버리니까 그 관공서에 근무하는 아들이나 조카들이 와가지고 작은어머니 이거 좋은 거예요 그냥 해주세요 하니까 그 앞에서 강하게 안 한다 이렇게 딱 못 하거든요.

여기서 반대하던 주민들의 여론을 바꾸어 동의서를 받아낸 과정에 유의미한 요소들이 몇 가지 관찰된다. 첫째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고 지목된 사람이 C 성 집성촌의 피붙이라 안면이 있는 사이라는 점이다.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J 씨네의 경우 삼십여 년 전 이 마을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외지인’으로 분류되는 반면, 노인회장의 아들은 ‘원주민’으로 일컬어진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혈연, 토박이인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가치판단의 요소가 된다. 둘째, 이러한 관계를 매개로 하여 자식, 조카 등의 “앞길을 막으면 되겠느냐”는 식의 도덕적 호소가 고령의 주민들에게 주요한 회유 및 설득의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 D 의 경우 본인의 아들은 수도권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⁴⁾ “군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다 XX (자식 이름) 앞길 막을 일 있냐”는 주변의 이야기에 입장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때 그의 자식이 실제로는 구례군에 의해 전혀 생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자식 세대가 피해를 볼까 겁이 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례군 안에서 먹고 사는 자식들, 조카들을 둔 가구들에게서 이러한 불안감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셋째, 이런 맥락에서 농협에 다니는 노인회장의 아들 및 관공서 다니는 자식 혹은 조카 세대들은 군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매개자가 된다. 요컨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1. 좁은 지역 사회에서의 혈연을 매개로 하여 2. 평생 유지해 온 사회적 관계가 깨지지 않길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을 파악한 후 3.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수행해 전체 여론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움직이는 작업은 좁게는 마을 단위, 넓게는 전체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진다. 각개전투 방식으로 추진 측의 논리를 제공해 설득하는 것 말고도 읍, 면 소재지 각각에 사업 찬성 현수막들이 대대적으로 게시되며 사회적 압박을 주는 식이다(아래 인터뷰 참조). 광장처럼 변변한 공론장이 없는 시골에서 주된 정치적 수단이 현수막 게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지자체 단위로 내걸린 발전소 적극 유치를 호소하는 문구들을 볼 때 입장이 다른 주민들이 느꼈을 압박감은 상당했으리라 짐작된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 H 씨는 “여럿이 몰아서 소수를 없애고 죽이는”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민 H : 전부 다 한동안 플랜카드를 엄청 많이 걸렸어요. 식당이고 무슨 단체고 근데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들은 관여가 없어 깊은 관여가. 그러니까 무조건 다 찬성해가지고 다 걸어놓은 건데... 그렇게 하면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여럿이 단체가 몰아서 소수를 없애고 죽이는 거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연구자: 그런 현수막에 주민들이 실제로 부담감을 느낄까요?) 부담감 느끼죠. 이제 결국 이제 거의 찬성이니까 부담감 느끼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는 사람, 피해가 인식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죠. 반대하면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2) 장소들

제임스 스콧(2020)은, 국가의 통치 행위를 ‘공간을 단순화하고 가독성 있게 만드는 작업’으로 요약한다. 개

4) 수도권이라는 지역과 자영업이라는 직업 범주는 면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실제 면담자 아들의 직업 정보와는 무관함을 미리 밝혀둔다.

인의 구체적 일상을 공간이라는 층위에서 단순화함으로써 국가는 통치의 대상을 명확하고 균일하고 표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숲은 과학적인 숲으로” 변형되고 개인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과 사회는 국가적 관점에서 변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 공간은 공공 계획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국가는 이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통치에 착수하게 된다. 양수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 등이 이러한 통치의 실례에 해당한다. 반면 이러한 ‘공간’과 달리, 이 장에서의 ‘장소’는 단순화될 수 없고 표준화될 수 없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인류학적 장소(오제 2017)를 의미한다. 끈끈한 숲은 직선들로 요약될 수 없는 작은 샛길들, 지도에 그려지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숨은 공터나 혼자만 아는 개구멍 등과 같은 곳들이 그러한 장소들이다. 장소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경험과 기억, 비인간행위자들을 포함한 존재들과 맺어왔던 관계들이나 역사 등 다양한 요소들로서 구성된다. 그러므로 장소를 상실한다는 것은 장소를 구성해 온 그 모두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 장소의 상실

물론 계곡산 일대는 우선사업지로 선정되었을 뿐 실질적인 공사 착수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나, 마을 주민들이 아직 ‘장소’를 ‘상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소를 상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J 씨, 그리고 이미 양수발전소가 가동 중인 산청군 고운동 주민 P 씨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J 씨의 이야기에서는 자신이 놀던 개울과 산 속 오두막으로 들어가던 오솔길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던 행복한 기억이 수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 속 장소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개울은 지자체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고, 그가 형과 함께 오리를 치던 산 뒤편 오두막을 가던 길 양쪽에 뻗뻗하게 들어서 있던 히어리 나무들은 모두 잘려 없어졌다(인터뷰 참조). J 씨가 아이스크림 바위, 딸기 바위 등으로 이름 붙여주며 놓았던 바위들은 사라졌거나 다른 구조물로 대체되었거나 개울의 모양 자체가 변형되어 그 깊이나 너비가 사람이 들어가 놀 수 없을 만큼 위험해져 버렸다. 그의 이야기에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많은 대상들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영원히 작별해야 했던 상실감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앞서 인용했던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하루살이만큼이나 흔하게 봤던 반딧불이도 이제 보이지 않고, 항공방제사업으로 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어나갔으며 밤나무 발 등에 산 주인들이 설치해둔 포충기에 하늘소나 쇠똥구리들이 죽어나가 무더기를 이루고 불이 날 정도였다는 일화 등이 등장한다. 양수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인 산청군에서 수몰된 고운동계곡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P 씨의 이야기 역시 소중한 시절의 기억과 장소, 그때의 경험 등이 묘사되고 있다(아래 인터뷰 참조).

주민 J : 저게 원래는 다 밤밭이 굵은 오래된 밤밭이고 히어리 나무가 짝 있는 되게 좋은 길이에요. 근데 땅 주인이라고 돼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나무를 싹 저렇게 해버린 거예요. (연구자: 왜요?) 있던 나무 싹 빼고 수종 개량해가지고 돈 보조금 받으려고. 저기다가 편백 심어서 하면 이제 돈 나오니까. 그걸 이제 이용해 먹고 이제 공짜로 나무도 심어주고 관리도 공짜로 해주고 그러면 저기 나무가 크면 나중에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관광자원으로 쓰겠다 그렇게 하는데... 산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소유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맞는가 모르겠어요.

산청주민 P : 어렸을 때 기억이 거기 아주 좋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내가 댐 만들기 전에는 이제 반천이라는 곳으로 해가지고 계곡을 통해서 올라가는 아주 오솔길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이제 학교를 7살에 들어가서 2년을 걸어 다녔는데 2년 동안.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기억 속에는 너무 아름답기에 남아 있어서 내가 이제 밑으로 이사오고 나서도 해마다 그 반천 계곡을 통해서 올라갔었거든요. 댐 생기기 전에는 거기가 정말 아름다운 동네였어요. 댐 그기 거로 잠긴 거지 고운동이 잠긴 거지. 고운동의 대부분이 잠겼다고 보면 되지. (중략) 그 딱 그 마을 입구에 이 바위가 큰 게 있었는데 그 바위 이름이 문턱 바위였어. 그거를 딱 거기를 딱 들어서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에 꽃혀가지고.

하지만 J 씨도 P 씨도 이 장소들을 도로 찾을 방법은 없다. 장소의 상실은 대체로 비가역적이며 영구적이기 때문이다. 장소가 경험, 기억, 역사와 사회적 관계에 결부된 것만이 아니라 확장된 자아(extended self)이기도 하다는 논의들을 참고하면(Kunchambo, Lee, & Brace-Govan 2017; Lengieza 2024; Martin & Czellar 2016), 이러한 상실은 더욱더 뼈아픈 것이 된다. J 씨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력하게 잃어야만 했던 경험들을 떠올려볼 때, 그나마 남은 것 - 길가의 히어리 나무들은 몽땅 베어져 버렸지만 아직은 남아 있는 오두막 언저리와 같은 - 조차 이제 상부댐 건설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고 게다가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과정을 매일 자신의 집에서 마주 보며 견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2) '공간'과 '장소' 사이의 거리

장소를 상실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에 더해, 동일인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사례를 통해 개인들은 '공간'과 '장소'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언급한 후 이 장을 마치고자 한다. 아래 인터뷰의 Y는 양수댐 추진위원 중 한 명이다. 추진위원회가 내세운 양수발전소 유치 필요성 중 핵심적인 것으로, 댐 건설을 통해 정주 인구 및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⁵⁾. Y는 문척면에 살고 있지만 양수댐 사업 예정지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읍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한다. 그가 사는 마을은 최근 구례군에서 추진 중인 사성암 케이블카의 출발지점과 가깝고, 현재 계획된 노선상으로는 마을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게 되어 있다. 케이블카 사업 역시 지역 내에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였으나, 당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양수발전소와 동일한 논리 - 케이블카 관광 사업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 - 를 내세웠다⁶⁾. Y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를 양수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사용했으나, 정작 자신의 마을이 이해당사자인 오산 케이블카 사안에서는 이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아래 인터뷰 참조).

Y : 그것(오산 케이블카)은 저희들이 지금, 지금 내가 우리 동네, 직접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

연구자: 그 ## 사장님(Y 지인)께서는 예전에, 지역 인구가 소멸하니까 이게 케이블카를 구성 마을이 이렇게 유입 인구를 흡수해서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하면 좋다고 하셨었거든요.

Y : 바보지 그게 그 케이블카하고 뭘 상관있어. 케이블카하고 인구 유입하고 무슨 상관있어. 근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나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케이블카 지나가는 선 밑에 하지라고 그러거든. 선하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기(##사장)는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만 하지만은,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사생활이 침범받잖아요. (케이블카가) 머리로 가면 괜찮아요. 밑에도 그리고 옆에도 바로 다 보이잖아요. 지금도 다 집에서 이제 막 급할 때는 속옷 입고 그냥 마당 나가서 그냥 이렇게 뭐 하고 그런데 못하지.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는 이들의 시선에서 특정 사업의 예정지 혹은 후보지는 그저 일정 면적을 가지고 특정 주소에 위치한 땅, 즉 기하학적 공간일 뿐이다. 이 관점에서 이 땅이 가진 고유함, 구체적 속성, 이곳의 역사,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주고받는 관계 등은 다루어질 여지가 없다. 하지만 Y가 추진위원으로 계곡산 일대를 조망했던 것과 달리, 그의 마을 상공으로 케이블카가 떠다니는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상으로 그려진다. 관광객들이 타고 마을 위로 지나다니면 그는 더이상 “속옷 입고 마당 나가서” 급하고 사적인 일을 볼 수 없게 된다. 그의 ‘장소’가 이처럼 “침범”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5) “총 1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부터 2035년까지 12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으로 인해 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구례군은 내다봤다.” (이데일리 2024. 10. 9.) 관련하여 각주 29)에 인용한 구례군의원 이창호의 기고문을 참조하라(『봉성신문』, “기고문, 구례 양수발전소 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2023. 7월호 4면)

6) “오산 케이블카를 핵심 아이টে으로 2천억 원 규모 투자를 통한 오산권역 관광 활성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체류형 관광도시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조선일보 2023. 4. 27.)

주민인 그에게 ‘인구 유입으로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케이블카 사업을 수식하는 거대 담론은 무익하고 무용한 수사(rhetoric)로 취급되고 만다. 사안과의 거리, 당사자성의 여부 등은 이처럼 주민 개개인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국가’를 바라보는 각각 다른 시선

앞에서 살펴보았듯 반대하는 소수의 가구들이 내세우는 분명한 반대의 이유들과 달리, 동의서에 서명한 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사안 자체에 대한 확고한 찬성의 이유들이 있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이때 많은 주민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또다른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국가 및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이었다. 이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민들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1) 국가 1: 개인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개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사고하느냐를 이해하는데 있어 역사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특히 계족산 일대 사업지 근처 마을에는 빨치산 아버지에 대한 회고를 자전적 소설로 썼던 C 모 작가의 생가와 친족들이 모여 살고 있다. 달리 말해, 지리산 일대에 살던 ‘빨치산’이란 말의 함의 - 20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역사를 관통해 온 경험 - 를 이곳 주민들은 공유하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구례 지역은 소위 ‘여순사건’이라고 지칭되는 10.19를 지역공동체가 겪어냈다(신유정·이체연 2021). 한국전쟁 즈음 일어난 이 사건이 지역 공동체에 남긴 집단적 트라우마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 작은 마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부역자라고 무고하고, 그 결과 이웃들이 죽거나 실종되는 경험을 한 이들은 말 그대로 “산산이 원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던(여순연구소 2020: 274)” 갈등의 역사를 살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체현(embodied, Csordas 1990)되었던 셈이다. 이런 역사적, 사회적, 지역적 맥락 위에서 주민들은 어차피 국가를 이길 수 없으니 차라리 실리라도 챙기자는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집단적으로 학습된 무언의 종용을 받곤 한다.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역시 국가에 대한 이런 식의 전제가 차용된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토목사업과 같은 개발과 연관 짓는 담론들에 대부분 기대어 있다. 국가는 어떠한 정책도 관철시킬 힘이 있는 행위자인 반면, 개인들은 무력하게 묘사된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조차, 해당 상황에서 제한적이지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해내는 것뿐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국가의 미래, 전력생산의 미래,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으며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것으로 그려진다(아래 인터뷰 참조).

추진위원 C: (반대하는 집의 아들 둘 다 홈스쿨링을 해서) 학교를 안 다녔다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그 학연이 있어요 자연이? 그래서 내는 이렇게 생각해요. U(환경단체 활동가)가 서울 말씨고 막 이래 잘하고 하니까, 뭐 이름 부르고 요래요래 다독여 주니까 그 정에 그리워서... 정에 다 약하잖아. (중략)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무엇을 챙겨주라는 거야. 아까 이 빵 하나 먹듯이 나만 먹어볼 게 아니고 그 애들도 먹을 걸 줘야 되잖아. (중략)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보상받는 게 최고지 않느냐. 당신들이 고생하는 것은 이 기회가 있을 때, 정부가 하는 거를 사람 하나 감옥에서 보내. 그런 애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으로 보내버려도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왜 했느니 따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살려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고프다고 돈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이래서 살살 하라고 했던 거예요.

동의서에 서명을 한 주민들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다. 구례 양수댐 사업예정지 마을 주민 Q 씨의 말과 산청 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동의 후 토지 수용이 되었던 P 씨의 말은 그런 측면에서 꼭 닮아있다.

주민 Q : 나가라면 나가야지. 어떻게 나라에서 하는 일을 할 건가

주민 P : 그게 이제 국가사업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이 돼서 그거 하는데, (반대 운동) 해봐야 어차피 안 되겠구나.

(2) 국가 2: “도깨비”들의 이야기

반면, 계족산 양수발전소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국가는 사뭇 다르게 묘사된다. 이들의 말 속에서 ‘국가’는 반드시 국민들이 따라야 하는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종종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주체이고 맞서서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사업을 반대하는 본인들은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항하는 도깨비”로 지칭된다(아래 인터뷰 참조). O 씨와 H 씨 등은 과거 마을에 규석광산이 허가될 뻔한 상황에서 국가와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다. 2007년 정부와 전남도, 구례군이 나서서 같은 지역에 규석광산 개발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주민들 약 150여 명이 마을회관 앞에 집결해 마을 입구 길목에서 경운기와 각종 농기구를 손에 들고 집단행동을 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 NGO 신문 2007. 3. 21). 당시 O, H 외에 마을 주민 S 씨 포함 세 가구가 규석광산 반대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⁷⁾.

주민 O : 나는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제 그거를 어떤 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겹쳐지나면은, 내 어렸을 때 5.18 때 겪었던 일하고. 그때는 이제 진두환이 물러가라고 막 이제 그랬을 텐데... 내가 그래서 정부 측은 악마고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도깨비**다. 정부 측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고 거기에 맞서는 사람은 옳은 것을 옳다 한다 이거죠. 원래 선하거나 옳은 것은 표를 내지 않고 조용하니 행동으로 해야되는 건데, 그거를 나서서 하는 것은 이제 근본으로 봐서는 그리 옳지가 않다. (중략) 그리고 지금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지 뭐.

주민 H : 그때 모든 주민들이 (규석광산에) 찬성하고 있었어. 그 업자가 동네 유지들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다 했어요. 술하고 돼지 같은 거 잡아가지고 마을별로 회식하고 돈도 주고 그래가지고 접수가 딱 돼 있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내가)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다니면서 뭐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았어요. 돌아다니면 싹 받아가지고 수면으로 딱 띄워놓으니까, 이제 모든 단체에서 다 들고 나와가지고 결국 못하게 했죠. (연구자: 왜 규석광산 개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광산 개발이 그거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발전이 될 수가 없어. 결국은 이제 다 이제 내팽개치고 그것이 커질수록 이제 팽개치고 다 나가야 돼 사람들이.

이들 “도깨비”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도덕적 우위를 부여한다.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우기는” 정부와 달리 자신들은 옳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다는 논리다. 물론 단순히 옳고 그름만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다. H의 규석광산 반대 운동에 대한 회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돈과 정부를 등에 업은 광산개발업자와 싸우기 위해 찬성/반대/중립의 세 범주로 주민들을 분류하고 전략적으로 반대와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주민들의 서명부터 게릴라 작전하듯 받아낸 후 이미 서명이 된 서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찬성하는 주민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통해 지역 등 여러 단체들의 개입과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국가는 도덕적으로는 열위에 있는 행위자이지만, 이들에게 역시 (전략을 갖고 외부와 연대해 싸워

7) 여전히 이 세 가구가 양수발전 사업에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S 씨의 경우 과거 규석광산 반대할 때와 달리 단체나 언론, 혹은 연구자와도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H 씨는, 2007년 규석광산으로 인한 갈등 당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속상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더이상 이런 문제에서 전면으로 나서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이 현재의 사회적 관계를 가능한 평온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좋은 삶’에의 열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야만 다뤄볼 여지가 있는) 강력한 존재로 묘사된다.

3. 결론

이 사례를 다룰 때 우선순위에 둔 것은 당사자들의 이야기였다. 양수발전소라는 거대한 규모의 토목사업이 수십 년간 살아온 마을에서 진행될 때,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근거로 도출되는지 당사자의 시선에서 이해해보고자 했다. 지역 내에서도 여러 공론장에서 에너지 전환이나 신재생 에너지, RE 100, 기후위기, 지역소멸, 생태보호와 같은 거대담론들과 다양한 당위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십여 년간 예정된 건설과정과 여기에 수반된 사회적 갈등 및 살던 곳의 물리적, 사회적 변화 등을 ‘살아내야만 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피상적으로 논의될 뿐이었기 때문이다⁸⁾.

사업의 미시적 층위에서, 주민들은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 - 각자의 ‘좋은 삶’에 대한 정동적 애착에 기인한 - 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들의 선택은 상당 부분 이러한 정동적 애착에 기대어 있다. 특히 양수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애착이 추진의 동력으로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사자 마을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라는 명분은 단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상 절차로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거시적 맥락에서의 정당성과 도덕적 가치들이 이러한 선택을 강화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구례군이라고 하는 작은 농촌 지자체가 처한 소위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은 그러한 맥락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나 중부발전이 아닌 추진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우, 이들 역시 구례군 주민으로서 갖는 당사자성이 있고, 이들이 빌려오는 거대담론이나 이데올로기적 논리를 감안하더라도 자신들이 속한 지역이 급격히 붕괴하고 소멸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은 지역주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실존적인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되고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정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마을 단위의 인프라도 좋아지는데다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와 기후위기에도 도움이 되는, 소위 공공성의 가치 때문에라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추진 측의 논리는 그런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된다. 최규연(2020)이 전력산업 정책에 관한 담론에서 말하는 공공성을 공-기표(empty signifier) 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논의를 참고하자. 공-기표란 기의가 고정되지 않고 활용 맥락에 따라 최적화된 의미를 생성하는 기표로 복합적 현실에 상존하는 모순과 불가피성을 비가시화해 현실을 수용하고 의사결정과 행위 수행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공-기표 활용은 경험적 현실이 가진 내적 모순을 덮고 이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둔갑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표면적으로나마) 현실을 수용하도록 하고, 그 현실 수용을 기반으로 정치적 목표를 향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ibid., 215). 즉, 공-기표는 성찰되지 않은 정치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이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행위 실천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기표 활용 주체가 의도한 정책 결정을 이루도록 하는 공-기표로서의 효과를 보였다.

물론 이 연구는 미시적 층위로 논의의 수준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구례군 문척면 사업예정지 부근은 인구밀도가 낮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토목사업·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현실적 조건을 갖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의 이해관계는, 인구가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고 변변한 일자리도 없는 작은 지자체의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맞물려 있다. 전자에게 이 사업은 공간에 대한 개입이고 통치의 일환이 되지만, 후자에게 이 사업은 삶의 터전인 자신의 지역을 잃지 않고픈 절박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케일의 충돌은 사례에서 매우 유의미한 지점이지만 이 글에서는 충분히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있고 강화된 담론분석이 필요하다.

8) 피상적 논의의 대표적인 예로 C 작가의 인터뷰를 들 수 있겠다. 그의 인터뷰에서 양수댐 건설 계획지구에 작가 생가가 있어서 보존해야 한다는데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찬성하는 일을,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 뭐라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로 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때 얼핏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과 외부인으로 범주가 구분되어 주민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는 사람들이 왜 찬성하는지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생략된다. 두 가지 이유 - 1. “사시는 분들”이라는 포괄적인 지칭만으로는 이러한 결정의 맥락과 동기, 그리고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회적 힘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성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마치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 에서 이러한 인터뷰는 오히려 당사자 주민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작업을 유보하게 하고 피상적으로 남겨두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한겨레 21, 2023. 11. 17, 이윤진 기자의 인터뷰).

더불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당면하는지, 이것이 개인들의 삶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통치는 일상과 어떻게 ‘마찰’(friction, Anna-Tsing 2005)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현경. (2020).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벌렌트, 로런. (2024). 잔인한 낙관, 박미선 윤조원 역, 서울: 후마니타스.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엮음. (2013). 장소경험과 로컬정체성, 서울: 소명출판.
- 오제, 마르크. (2017). 비장소 - 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이상길 이윤영 역, 서울: 아카넷.
- 살린즈, 마샬. (1991). 문화와 실용논리, 김성래 옮김, 나남.
- 스콧, 제임스.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역, 서울: 에코리브르.
-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2020, 여순 10·19 구레군 구슬채록 조사보고서.
- 신유정, 이채연. (2021). “재난 이후 공동체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2020년 섬진강 범람 이후 구례지역 사례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54(2), 97-157.
- 최규연. (2020). “공공성은 공-기표인가?: 에너지 노동-환경 담론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9-253.
- Csordas, Thomas J., (1990), “Embodiment as a Paradigm for Anthropology,” *Ethos* 18(1): 5 - 47.
- Kunchambo, V., Lee, C. K., & Brace-Govan, J. (2017). “Nature as extended-self: Sacred nature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responsible consumption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74, 126-132.
- Latour, B., (1987),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 Lengieza, M. L. (2024). “Eudaimonic self-expansion: The effects of eudaimonic reflections on nature connectednes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94, 102231.
- Martin, C., & Czellar, S. (2016). “The extended inclusion of nature in self scal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7, 181-194.
- Tsing, A. (2005). *Friction. An ethnography of global connection*.

홍천 양수댐⁹⁾ 예정지 답사와 주민 면담결과

윤주옥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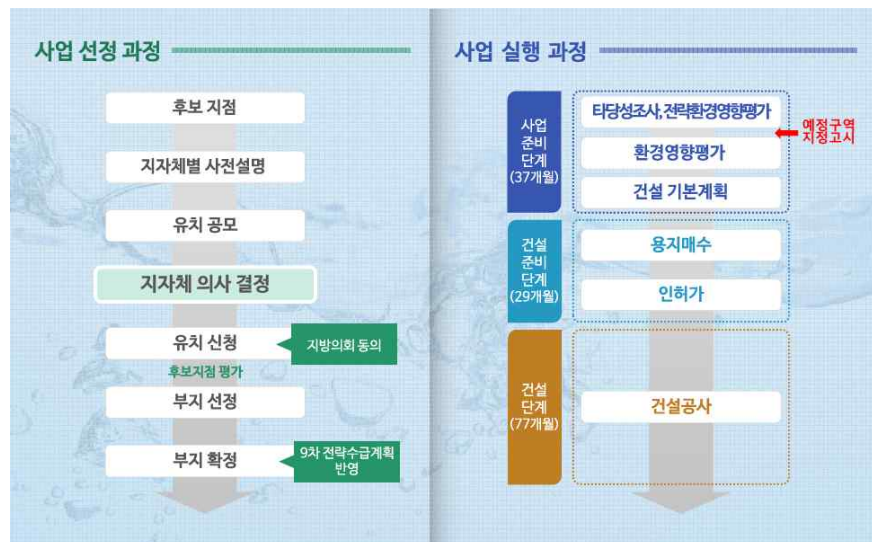


<사진 1> 농촌파괴형 난개발 저지를 위한 홍천연대회의 출범 군민대회(홍천군민대회)

<사진 2> 홍천군민대회에서 연대 발언

1. 홍천 양수댐 추진 상황과 반대 활동

홍천 양수댐은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 하부댐을 짓고, 화촌면 풍천리와 야시대리 일원에 상부댐을 짓는 사업이다. 설비용량은 600MW, 사업 기간은 11년 11개월(준비 66개월, 건설 77개월), 사업 규모는 조 2천억 원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9년 2월 전국 7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지자체별 사전 설명과 유치공모를 시작하였고, 홍천군은 5월 말에 유치신청을 한 후 한수원이 6월 말 포천, 영동, 홍천 등 3곳을 양수댐 대상지로 선정했다. 제9차(2020~2034, 발표: 2020.12.28), 제10차(2022~2036년, 발표: 2023.1.12.)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정구역지정고시, 환경영향평가, 건설기본계획 및 허가, 용지매수 및 인허가 후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4월 현재 한수원은 건설기본계획을 작성 중이다.



<그림 1> 양수발전소 사업 선정과 사업 실행 과정

9) 글에서 사용하는 홍천 양수발전소, 홍천 양수댐, 홍천양수 등은 같은 의미이다.

10)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답사보고서 정리를 맡았다. 이 답사보고서는 별첨 자료로서, 전체보고서와는 달리 활동가의 시각에서 정리된 것임을 밝혀둔다.

홍천 주민들은 양수댐 유치 과정부터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했다. 2019년 3월 풍천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앗아갈 양수댐 건립 반대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허필홍 홍천군수는 3월 21일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양수발전소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연이어 홍천군 의회는 3월 28일 “풍천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허 군수는 4월 14일 주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주민설명회를 열어 찬성 여론을 조성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해당 지역 가구마다 7,500만 원의 보상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한수원으로 부터 들었고, 토지강제수용으로 쫓겨나는 주민들에게 시세보다 3~4배 더 보상해 준다는 것도 ‘감정평가 즉 공시지가’에 기준하는 보상임도 확인하였다.

또한 당초 거론하지 않았던 송전탑이 세워지고, 고압선로가 마을을 지나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주민설명회를 유도한 찬성 측 화촌면이장협의회 이름으로 전달된 주민설명회 건의서도 이장 한 사람이 벌인 행각임도 드러났다. 주민들은 4월 19일 밤샘 농성을 통해 허 군수에게 양수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차 받아 냈다. 그러나 허 군수는 두 번의 약속을 깨고, 양수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양수댐 사업을 결정하는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도 사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예정 부지를 결정한 후 주민들에게 수용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주민들은 양수발전은 경제성이 전혀 없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며, 지역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고,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토지와 주택, 농경지를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한다며 반대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홍천양수반대위)는 유치공모 시절인 2019년 2월부터 반대운동을 했다. 2019년 11월 홍천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매주 결의대회와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29일(금) 제596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및 홍천 양수발전소 송전탑백지화 결의대회¹¹⁾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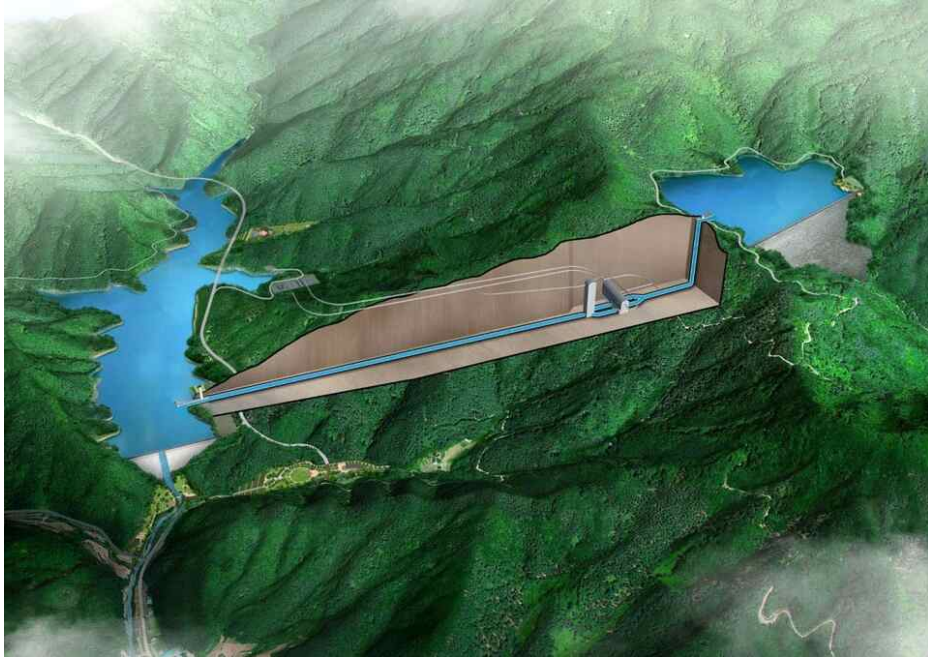
2. 현장 답사

홍천 양수댐 예정지를 돌아본 답사에는 답사팀 외에 L 총무¹²⁾, P 목사¹³⁾ 등이 참석했다. 답사 경로는 임도를 따라 차로 타고 상부댐 예정지를 본 후, 다시 차로 하부댐 예정지를 돌아왔다.

11) 결의대회는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홍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등이 참여와 주관하고, 주요 슬로건은 ‘지금당장_기후정의’, ‘전원개발사업인 양수발전소, 송전탑을 우리는 반대한다’, ‘책임행정 촉구한다. 신영재 군수 응답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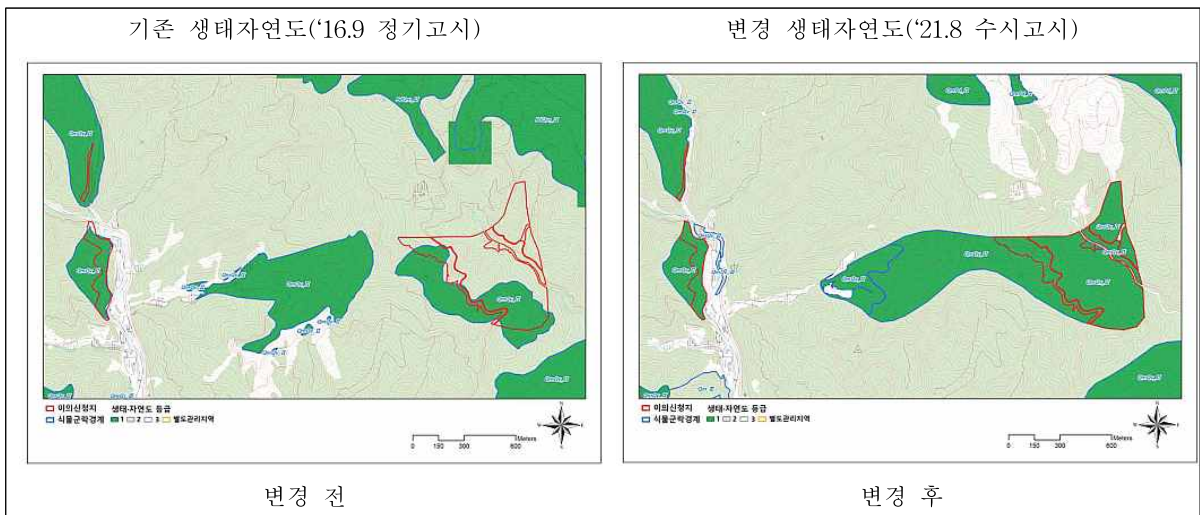
12)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 총무

13) 농촌파괴형 난개발 저지를 위한 홍천연대회의 공동대표



<그림 2> 홍천양수 하부댐, 도수터널, 상부댐 모식도

L 총무 집에서 임도를 따라 20여 분 올라가면 상부댐 예정지가 나온다. 한수원은 상부댐 예정부지(신청지역) 일원(풍천리 산77 일대)을 개발하기 위해 생태자연도 1, 2, 3등급 지역을 등급 하향하려 했으나, 뜻밖에도 이 지역이 모두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등급 상향 이유는 식생, 포유류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수원은 신청지역을 포기하고, 신청지역 주변에 위치한 생태자연도 등급 하락지역을 상부댐 예정지로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양수발전소 사업이 불가능해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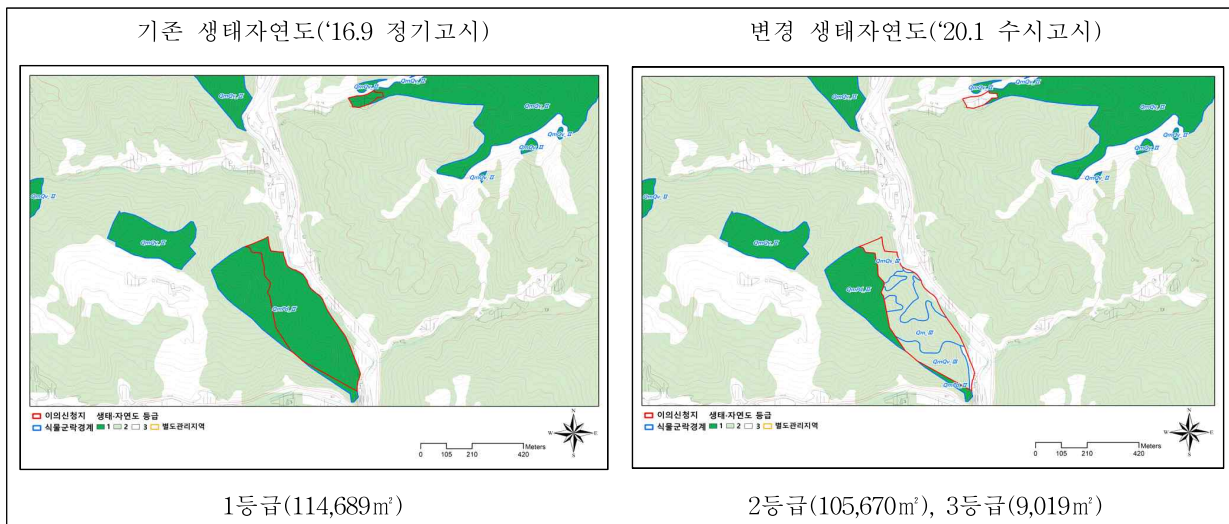


<그림 3> 홍천양수 상부댐 예정지 생태자연도 변경 현황



<사진 3> 멀리 홍천양수 상부댐 예정지가 보인다 <사진 4> 상부댐 예정지를 설명하는 L 총무(왼쪽 첫 번째), P 목사(왼쪽 세 번째)

이에 앞서 한수원과 홍천군은 생태자연도 이의신청('19.8,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현지조사('19.10),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19.12, 국립생태원), 수시고시('20.1, 환경부) 등을 통해 하부댐 예정지(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 49일대)의 생태자연도를 기존 1등급에서 2, 3등급으로 변경하였다. 변경 사유는 현지조사 결과 식생보전등급 변경(식생보전등급 II등급→III등급, IV등급 등)에 따른 등급 하락이라고 밝혔다. 하부댐 예정지인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은 1,800여 헥타르(ha)에 이르는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이 있다. 이 숲은 1935년과 1974~1976년에 집중적으로 조림하여 형성되었다. 한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훼손 수목은 약 10만 그루에 달한다고 했다. 풍천리 주민들이 홍천군청 앞에서 2019년부터 매주(최근에는 격주) 반대 집회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잣 때문이기도 하다. 이창후 총무는 탈핵신문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잣을 따고 주워서 생계의 큰 부분을 해결하는데,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평생 살아갈 생계가 위협받기에 양수발전소 건설은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¹⁴⁾



<그림 4> 홍천양수 하부댐 예정지 생태자연도 변경 현황

14) 『탈핵신문』, “홍천양수발전소 건설계획의 문제점 조명,” 2023.8.14.일자.



<사진 5> 홍천양수 하부댐 예정지 주변 잣나무



<사진 6> 하부댐 예정지를 설명하는 L 총무(오른쪽 첫 번째), P 목사(왼쪽 두 번째)

3. 주민 면담

1) 면담참여자 설명

면담은 2024년 4월 2일, L 총무, P 목사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¹⁵⁾ 면담에는 당사팀이 전원 함께 했다.

L 총무는 하부댐 예정지인 풍천리에서 태어나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 홍천 양수댐이 건설된다고 해서 무주양수, 밀양양수, 예천양수 등 3곳을 다녀왔다. 무주는 하천(거의 강)이 다 오염되고 사람들의 삶도 피폐했고, 와인동굴을 내세우는데 그것도 군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양수댐이 운영되는 다른 지역을 보니 이견 아니다 싶었다.

풍천리에서 양봉, 농사, 잣 등을 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잣을 따기 시작했다. 생계형이다. 잣을 따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지만 나무에 달린 잣은 사람이 올라가서 따는 방법밖에 없다. 잣 따다가 잣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와 함께 차곡차곡 떨어지면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

P 목사는 홍천이 고향이다. 외지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골프장 반대 활동 등에 앞장서고 있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고 원주녹색연합 대표이다. 아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면담 내용

(1) 주민들의 태도

① 풍천리 주민들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풍천리는 마을이 모여 있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흩어져 있으며, 농사, 산촌 사업, 잣, 산림부산물 채취 등으로 먹고 산다. 수몰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한다. 48가구가 수몰되는데 이곳은 산촌 특화마을로 펜션 붐이 일어났던 곳이다. 원주민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펜션 사업을 하려고 귀촌하였다. 토지강제수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공식지가+@: @는 10% 정도) 장사가 안돼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안 팔리는 상황이다보니 보상받고 나가려고 한다.

홍천 양수댐에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토박이이다. 반대활동 중심이 외지인이면 주민 조직에 어려울 수 있으나 ‘월운리 골프장 반대대책위’처럼 끊임없이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 집회에 주민들

15) 1차는 2024년 4월 2일 16시 30분 ~ 18시 홍천양수 상부댐, 하부댐 예정지에서, 2차는 같은 날 18시 30분 ~ 19시 30분 저녁밥 장소에서, 3차도 같은 날 20시 ~ 21시 홍천읍내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이 꾸준히 참석할 수 있는 이유는 집회 문자 보낸 후 소집책이 주민들과 연락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연결망은 늘 작동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회를 기도회 방식으로 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니 기도회란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장들은 다 손 놓고 있다. 이장 선거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선거 때는 반대한다고 하고 당선 이후에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번에 개발위원, 반장 등은 모두 반대하는 분들로 구성되었다. 노인회도 장악하였다. 이장이 반대와 다른 얘기를 해도 그냥 놔두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탄핵당한다. 전 부녀회장이 부녀회장을 관두고 이장에 나왔는데, 이장에서 떨어지면서 전 부녀회장(반대)을 중심으로 부녀회를 없애고 봉사회를 만들었다. 현재 부녀회장을 하려는 분들(찬성)과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②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움직인다

홍천군청은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몇 사람이 소란 피우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싸움 초기에는 군청 안에 들어가 공무원들을 퇴근 못 하게 하면서 우리 요구를 관철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끌어내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생존권 때문에 싸우는데 군수가 주민들을 고발하니 오히려 역풍이 풀고 있고 경찰은 지켜만 보고 있다.

군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공무원들도 군수 생각을 따라 움직인다. 군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행동(설득, 물리적 압박, 협박 등) 선택은 지역의 몫이며 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허필홍 전 군수로부터 갈마곡리 골프장 취소를 얻어가는 과정도 주민들이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한 관변단체와 군수가 만든 사조직이 찬성 측 중심이다.

③ 홍천 양수댐은 다른 대안이 있다

청평양수, 밀양양수는 상부댐만 있으니 생태계 훼손이 덜하다. 양수댐으로 인한 오염은 양양양수 이주단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양양양수의 경우 도수터널이 2km나 되니 어디서든 물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홍천양수도 상부댐만 짓고 하부댐 물은 소양호에서 끌어와도 된다. 그러면 하부댐 지역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2) 홍천 양수댐 예정지

① 하부댐 예정지는 우리나라 최고 품질의 잣 생산지

홍천 전역에서 잣이 생산되지만 풍천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품질 잣이 생산되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1937년도에 일본인들이 심어 그동안 잣을 따 먹었다. 화전민이 나가고 70년대 초반에 다시 잣나무를 심었다. 여기 잣나무는 풍흉이 없다. 강원도에 퍼진 잣나무는 모두 여기에서 나간 잣나무이다. 잣나무는 고온 다습하면 망가진다. 기후변화로 가평은 잣나무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 농사 제외하고 잣만 따도 수입이 된다. 마을에서는 10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인다. 올해는 7~8억 원이 나왔다. 많이 나올 때는 10억 원도 된다. 흉년이어도 2~3억 원은 나온다. 나무에 올라가 채취하는 사람도 있고(3~4천만 원), 줍는 사람도 있다(2천만 원). 자본이 필요 없다.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잣 줍는 재미를 느낀다.

잣은 9월 말부터 따기 시작해 많이 달릴 때는 3월까지도 따다.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작업 못한다. 평상시 주민들이 숲 관리를 하고, 잣을 딸 수 있도록 산림청과 보호협약 맺는다. 생산량의 10% 정도를 임대료로 준다. 홍천 양수댐은 세계 최고의 잣 브랜드를 없애는 꼴이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이고, 이곳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② 상부댐 예정지

상부댐 예정지는 임도를 통해 차로 올라갈 수 있다. 주민 반대에서 불구하고 임도 만들었는데 임도가 양수

댐 위치 선정에 도움이 되어 버렸다. 임도가 조성된 지역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었다. 상부댐을 하겠다면 지역은 1, 2, 3등급 지역이었는데 생태자연도 변경 신청을 했더니 1등급이 나왔다. 한수원은 예정지역 가까운 곳, 생태자연도가 떨어진 지역으로 상부댐 예정지를 200m 정도 끌어 올렸다. 공사비가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올라갔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없이 그냥 추진하였다. 상부댐 길이가 610m인데 소양댐 독보보다 더 긴다. 높이는 110m이다. 가리산과 연결되어 있고, 해발 1,200m, 산양이 출몰하는 지역이다. 참수리, 까막딱다구리도 살고 있다. 천연기념물이 사는 곳이어도 저감 대책만 마련하면 끝이다. 여기 모든 나무를 다 베어내야 한다. 오래된 참나무 등 활엽수를 그루터기 이식 방법을 제시했는데 환경청에서 이를 협의해줬다.

③ 하부댐 예정지

상부댐으로 올라가는 길에 반대 현수막을 600장 걸었는데 3개월 후 홍천군청에서 모두 뜯어갔다. 담수 기간만 3년이 걸린다. 실제 운행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부댐 물이 오염되는 이유는 물을 가두기 때문이다. 양수댐은 전기생산이 아니라 전기를 쓰기 위한 발전소이다. 블랙아웃은 전기가 모자랄 때만이 아니라 남아도 온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남아도는 전기를 어딘가에서 써야 한다. 그러니 양수댐이 필요한 이유는 전기를 쓰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박성율, 2022.5, '양수발전소 건설의 문제점,' 『현장과광장』 제6호: 243-256.
『탈핵신문』, "홍천양수발전소 건설계획의 문제점 조명," 2023.8.14.일 자.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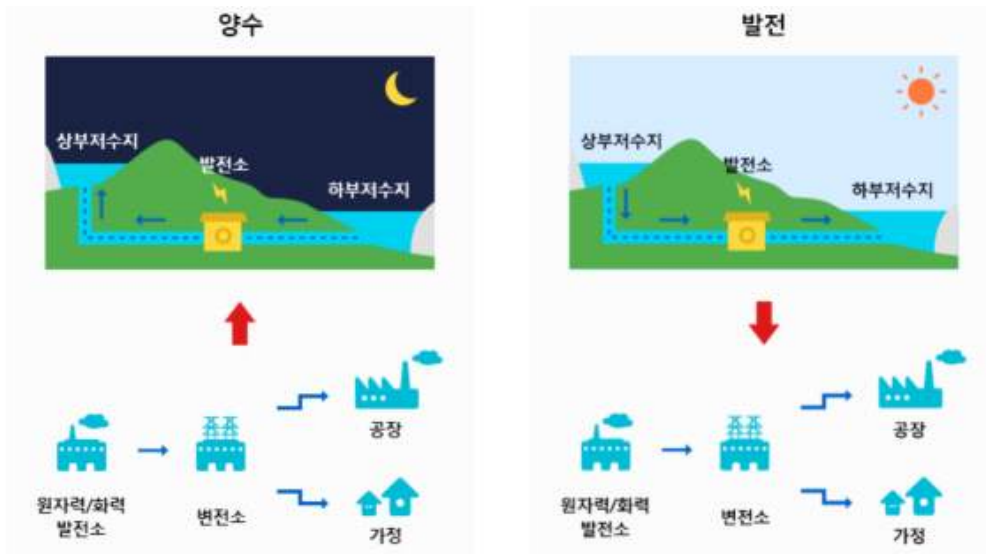
16) <https://www.nonuk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7>

고운동 주민 면담과 산청양수17) 현장 답사결과

윤주옥

1. 기본 현황

양수발전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시간대의 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한 발전 특성상 상부댐이 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입지 특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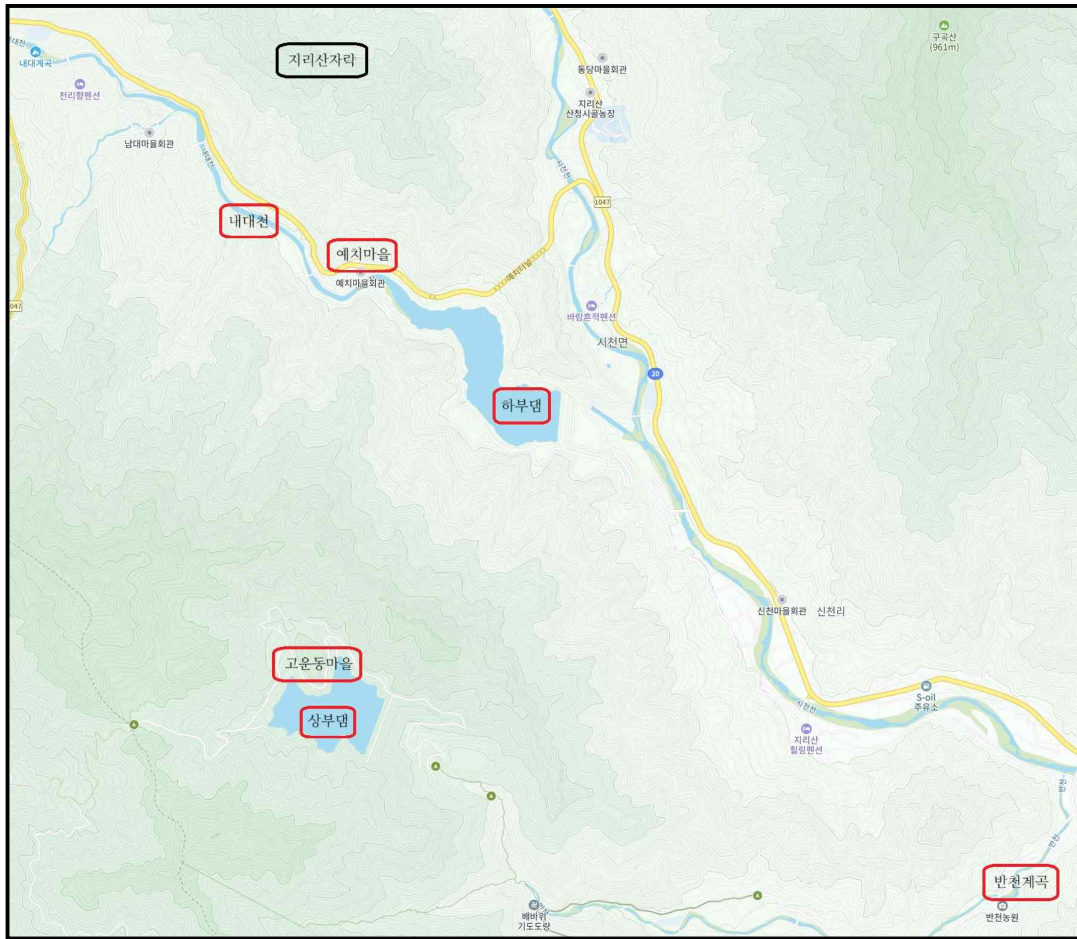
<그림 5> 양수발전 원리 (기획강좌: 지리산에서 에너지 자립의 삶은 가능할까 2강 - ‘왜 양수발전인가’ 강익구 발표자료 중)

세계 최초의 상업용 양수발전소는 1907년 스위스 샤프하우젠 엔게바이어(Engeweiher) 저수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30년대 이탈리아에 발전기-전동기를 병행하는 현대식 양수발전소가 들어섰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일본에도 같은 방식의 발전소가 세워졌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 지어진 청평 양수발전소가 처음이다. 2024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7개의 양수발전소가 운영 중이다.¹⁸⁾

산청양수는 상부댐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에, 하부댐이 시천면 반천리에 위치하며, 상부댐과 하부댐은 최대 유효낙차는 427.5m이다. 산청양수의 이용수계는 덕천강으로 흘러가는 반천계곡(상부댐)과 내대천(하부댐)이다. 유역면적은 상부댐이 2.06km², 하부댐이 36.3km²이며, 만수 면적은 상부댐이 0.24km², 하부댐이 0.35km²이다. 총저수량은 상부댐이 640만 톤, 하부댐이 740만 톤이다.

17) 이 글에서 사용하는 양수발전소, 양수댐은 같은 의미이다. 다만 양수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양수발전소라 부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은 양수댐이라 부르고 있어,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였다. 글의 흐름에 따라 산청 양수발전소, 산청 양수댐은 ‘산청양수’, ‘지리산 양수댐’이라고도 쓴다.

18) 현재 양양(1000MW), 청평(400MW), 예천(800MW), 청송(600MW), 무주(600MW), 삼랑진(600MW), 산청(700MW) 등의 지역에 양수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그림 6> 산청양수 상부댐, 하부댐, 고운동마을 등 위치도 (다음지도 활용)

산청양수는 한국전력(한전)이 사업비 5,800억 원으로 1995년 2월 착공하여, 2001년 12월 준공하였다. 상업 발전은 1호기가 2001년 9월에, 2호기가 2001년 12월에 개시하였다.¹⁹⁾ 시설용량은 350MW 2기이고, 연간 발전량은 12.2억 kWh(이용률 20%, 발전시간 7시간 50분)이다.

산청양수는 순양수식 지하발전소이다. 상부댐의 높이는 86.9m, 길이는 360m, 댐 체적은 2,534천m³이며, 하부 댐의 높이는 70.9m, 길이는 268.1m, 댐 체적은 1,591천m³이다.

2. 건설 과정

- 1991년 7월 6일 ~ 1992년 7월 5일 : 타당성 조사
- 1991년 7월 6일 : 환경영향평가 시작
- 1991년 10월 : 제1차 장기전력수립계획시 건설 계획
- 1992년 9월 17일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 1992년 11월 6일 : 기본계획 확정
- 1993년 2월 22일 :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 양수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업소 발족
- 1995년 2월 : 착공
- 2001년 9월 : 1호기 준공
- 2001년 11월 : 2호기 준공

19) 『전기저널』 (2002.01), 한국전기협회, p.29.



<사진 7> 산청양수 상부댐 (2024년 5월 29일 드론촬영)



<사진 8> 산청양수 전력홍보관



<사진 9> 산청양수 하부댐

3. 건설 당시 찬반 논리

1)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한전은 이렇게 말했다. 양수발전소는 갈수록 늘어나는 원자력발전소의 심야 잉여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밤에는 전력이 남아돌아도 출력을 줄일 수 없어 심야 잉여전력을 저장해 최대 부하 시간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양수발전소 대상지로 지리산을 선택한 것은 원자력발전소가 영광, 고리 등 남부지방에 집중돼 있어 송전에 따른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한전은 산청 양수댐은 전력품질 향상,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의 사업효과도 있다고 주장하였다.²¹⁾

(1) 전력 품질 향상

시설용량 35만 kWh 발전기 2기가 가동되면서 연간 12억 2,000만 kW의 전력을 생산 공급하게 됨으로써 서부 경남지역 전력계통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질 좋은 전기를 유지한다.

(2) 지역사회 발전 기여

양수발전소 건설 기간에 주변 지역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과 육영사업에 14억 3,000만 원을 주변 지

20) 『제11회 생태기행 지리산 고운동(자료집)』 (1996.05.19.). 진주환경운동연합 산림생태분과. p. 16.

21) 앞의 자료집, pp. 18-19.

역에 지원하고, 발전소 운영 기간 50년 동안에는 해마다 1억 5,00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전력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발전소 건설 기간 중 연 12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장비사용, 자재 구입과 제세공과금 등 건설에 따른 부대비용 400억 원과 운영 기간 중 해마다 15억 4,000여만 원이 지원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상부댐과 지하의 공동에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지리산을 찾는 내방객의 관광명소로 각광 받게 될 것이다.

(3) 환경 보전 대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예정이다. 터널 굴착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오탁수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질보전 설비와 건설기계 장비, 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및 날림먼지 방지시설 등을 운영한다. 폐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와 수물지역의 폐가옥, 축사 등과 건설 현장의 폐자재 등을 수거할 수 있는 설비 대책과 유출 토사로 인한 오탁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한다. 공사 기간 중 날림먼지 방지와 소음 대책은 차량 주행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살수차를 운행하며 소음 방지막을 이중으로 설치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한다. 국지적 기온변화, 안개일수 증가와 이에 따른 일조량 감소 등의 기상변화로 인한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상부댐과 하부댐에 각각 1개 지점씩 2개소에 자동기상관측소를 설치한다. 기상변화의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특별한 기상변화나 안개일수 변화 등이 예상될 경우 기상전문가로 하여금 공사시행 중이나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조사, 파악해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기상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주변 생태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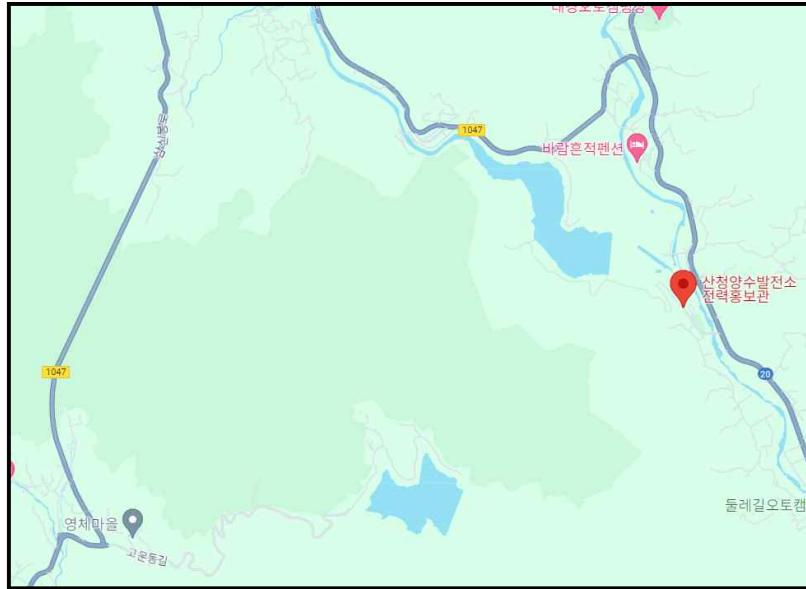


<사진 10> 산청양수(상부댐으로 추정) 공사현장
©환경아카이브폴숲

<사진 11> 산청양수 공사현장에서 바라본 지리산
©환경아카이브폴숲

2) 문제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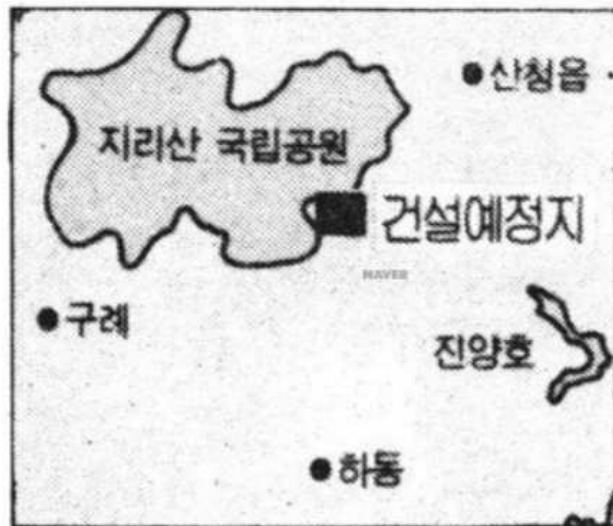
산청양수는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시설로 지리산국립공원 경계에 맞닿아 있다. 산청양수에 반대하는 ‘지리산 양수댐 건설저지를 위한 서부경안 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리산자락에 건설되는 산청 양수댐을 ‘지리산 양수댐’으로 부르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림 7> 산청 양수발전소 상부댐(아래), 하부댐(위), 진한 녹색이 지리산국립공원이다 (구글맵 캡처)

(1) 지리산 생태계 변화

고운동계곡²²⁾과 내대천 일원은 야생 차나무를 비롯한 지리산 고유 식물과 멧꿍이, 능구렁이, 까치살모사, 꼬치동자개, 새매, 황조롱이 등 희귀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리산 양수댐이 건설된다면 이들 야생동물의 멸종, 이동이 예견된다. 대규모 면적이 물에 잠기고, 담수로 인한 기후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²³⁾



<그림 8> 지리산국립공원 경계선에 위치한 지리산 산청양수 상부댐 (한겨레 1993년 4월 22일자)

(2)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22) 고운동계곡의 물은 반천계곡으로 흘러가는데, 고운동 마을 사람들은 고운동계곡과 반천계곡은 같다고 한다(P 씨 면담 중).

23) 앞의 자료집. pp. 5-7, pp. 16-17.

한전은 댐 건설 예정지의 녹지자연도를 7등급이라며 개발 가능지역으로 표기하였다. 이경재 교수 등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부댐 건설 예정지는 8~10등급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교수는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산청 양수발전소 상부댐 건설 예정지 생태계 부분 현장 확인 보고서』(1994)를 통해 ‘상부댐 건설 예정지 인근에는 신갈나무와 서어나무가 우점종인 산림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한전의 현존식생도는 재작성’되어야 하며, ‘본 조사대상지 숲은 양적인 성장단계를 지나서 질적인 성장단계로 접어든 것이므로 생태적 천이단계에서도 이차림의 초기 단계를 지나 이제 성숙단계의 전반부에 해당함으로 생태적으로 보아도 녹지자연도 등급 7을 지나 등급 8로 접어든 것이’니. ‘이상을 종합할 때, 상부댐 예정지 인근 숲의 녹지자연도 대부분은 8등급으로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재작성되어야 하며, ‘꼬리치레도롱뇽은 환경처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물로서 보호해야 할 생물종으로 만약 상부댐이 건설될 경우 멸종’할 것이라 우려하였다. 결론적으로 ‘한전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동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과 환경처가 지리산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녹지자연도를 조작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주장했다. (송승하 기자)

“지리산 발전소 녹지등급 조작”

환경운동연합 경위해명·환경평가 재 실시 촉구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경리 이상중)은 9일 지리산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처와 한국전해공사가 녹지등급을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 확산성 환경처장관, 이종훈 한전 사장과 환경영향평가팀을 환경처외로 직무유기 등 협의로 강하게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 시내 연구 신문도 일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녹지등급 조작으로 논란을 빚어온 경남 산청 지리산 양수발전소 건설예정지에 대한 자체 생태역조사 결과 이 지역의 실제 녹지등급이 개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8등급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한전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같은 지역을 사실상 달리 개발가능 등급인 7~8등급으로 편성·보고했으며, 그만큼 녹도 이 지역을 8~9등급으로 평가하던 환경처가 재도를 바꿔 한전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그림 9> 1993년 11월 9일 진행된 ‘지리산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작 관련 기자회견’ (한겨레 1993년 11월 11일자)

(3) 댐으로 인한 안개 피해

한전은 소양강댐과 비교하여 지리산 양수댐의 발전용량은 3.5배이지만 호수 면적은 소양강댐의 1/100도 안 되기 때문에 안개일수 증가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렇게 말했다. 진양호의 경우, 댐 건설 전에는 45일이던 안개일수가 댐 건설 후인 70년대에는 70일, 80~90년대에는 91일로 나타나 댐으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는 2배에 달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개 피해는 진양호 건설 후 코스모스가 늦여름에 피기도 하고, 서부 경남지역에 신경통, 이비인후과 환자가 급증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안개일수 증가로 양수댐 예정지인 예치마을 특산물인 토종꿀, 차, 꽃감 등의 재배는 큰 차질이 생길 것이고, 벼의 성숙과 결실 그리고 지역 산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²⁴⁾

24) 앞의 자료집. pp. 5-7, pp. 16-17.

안개 피해와 관련하여 양구와 순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양구군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양구지역 피해 산정 보고서』(2012)에는 소양강댐 본댐의 축조 공사가 시작된 1970년부터 2011년까지 42년 동안의 피해액이 2조 9,970억 원으로 산정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경지 수몰 피해액 3,264억 원, 교통손실액 1조 5,149억 원 등으로 평가됐다. 한해 약 713억 원이 손해 본 셈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안개에 따른 피해가 상존한다는 점이다. 댐으로 인해 거대한 호수가 생기면 안개가 자주 생긴다. 1966년 양구의 연간 안개일수는 26일이었지만, 1993~2010년의 평균 안개일수는 123일로 무려 5배로 늘어났다. 가을이 되면 양구는 안개도시가 되었다. 양구는 9월에는 한 달의 절반 이상인 18일, 10월에는 13일이 안개로 뒤덮였다. 양구군 관계자는 “양구 어르신들은 기관지병을 달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안개가 끼면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호흡기 질환 위험성이 커진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안개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 1,034억~1,689억 원 말고도 안개 때문에 주민 진료비가 348억~695억 원 늘어나게 됐다고 추정했다.²⁵⁾

순천은 특이한 곳이다. 전국 어느 곳을 살펴봐도 대형 수력발전댐 3개(소양·순천·의암댐)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순천뿐이다. 인공호수가 생기면서 순천지역엔 안개가 늘었다. 전국 평균 안개일수는 연간 24.2일인데, 순천댐과 의암댐이 세워진 후 연평균 40일로 늘었고, 소양강댐 준공 후에는 연평균 64.3일로 폭증했다. 안개의 미세한 물방울에 대기오염 물질이 녹아들면 스모그가 될 수 있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서리가 끼는 날도 연간 77일에서 연간 114.7일로 50%나 늘었다. 이 역시 호수로 인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늘어난 탓이다.²⁶⁾

(4) 하류 지역 환경변화

지리산 양수댐은 공사 동안 100만 서부 경남 지역주민의 식수원인 진양호 상류, 즉 덕천강, 경호강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공사 후에는 부영양화, 성층현상 그리고 물의 흐름을 차단해 진양호 상수원의 고갈 문제 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사 중 잦은 발파로 인한 소음공해는 인근지역의 가축 폐사와 야생조수의 서식처 이동, 날림먼지, 그리고 산림훼손 등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²⁷⁾

하부댐 인근 곡점마을에 터를 잡은 지 19년째라고 소개한 ㄱ 씨는 산청 양수발전소에서 산청군과 시천면에 발전기금을 제공하고 있고, 수몰된 예치마을은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 펜션단지를 조성했으며 상부댐이 있는 고운동까지 도로를 건설해 교통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수질은 확실히 나빠졌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과정에서 산림 훼손, 수계 통제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 등을 간과한 이야기다. 시천면에서 나고 자란 ㄴ 씨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계곡에 이끼가 많아져 눈으로 봐도 물이 오염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청 양수발전소 입구에는 수질 현황판을 붙여놓고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부댐이 위치한 고운동에 40년째 사는 ㄷ 씨는 반천동과 고운동에서 각각 길을 막는 등 반대운동을 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다고 했다. 반천동에서 고운동으로 이어지는 길도 막혀버렸다고 이야기했다. 최치원 선생의 호 '고운'에서 유래한 고운동은 깊은 산속에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분지 지형으로 풍수 지리적으로 명당자리다. 여름철 부채도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했던 이곳은 양수발전소 건설 이후 2~3도가량 평균기온이 올라갔고, 전기 없이도 소박하고 고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아름다운 고운동계곡이 사라졌다고 한다.²⁸⁾

25) 『한겨레』, “소양강댐 따위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 2013.5.24.일 자.(2019.10.19.일 자 수정.)

26) 『중앙일보』, “박정희 결단으로 123m 지었다…50살 된 소양강댐 '年 2조 가치',” 2023.10.15.일 자.

27) 앞의 자료집. pp. 5-7, pp. 16-17.

28) 『경남도민일보』, “양수발전소 댐 생기고 아름다운 골짜기 잃었다,” 2021.4.13.일 자.



<사진 12> 지리산 양수댐 반대 활동
©환경아카이브폴숲



<사진 13> 지리산 양수댐 반대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환경아카이브폴숲

4. 고운동 주민 면담

1) 면담자 소개

산청양수 상부댐이 위치한 고운동에 살고 있는 주민 2명을 면담하였다. 면담자 이름은 가명이다. 2024년 6월 29일(토), 산청군 시천면 면 소재지 인근 카페에서 P 씨를, 2024년 8월 11일(일), 지리산고운동아침펜션에서 X 씨를 만났다.



<사진 14> P 씨 면담 장면



<사진 15> 산청양수 상부댐 앞 '고운호' 돌비석

산청주민 P 씨는 산청 양수발전소 상부댐이 위치한 고운동(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반천리 669번지)에서 1961년 태어났다. P 씨가 고운동에 산 것은 8대조 할아버지 때이다. 1대를 30년으로 잡아도 '240년 전이니 조선 영정조 시대'이다.

“내한테 8대조 할아버지가 조선왕조에서 정삼품 벼슬을 했는데, 구체적인 직책 같은 것도 전해오는데 없고, 하여튼 비석에 보면 ‘정삼품 통정대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입향조라, 이게 맨 처음에 지리산 자락으로 내려와가지고, 대충 연대를 따져보니까 영정조 무렵이던데, 뭐 때문에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아니면 이제 노자 이런 데 심취해서 연단 검무 이런 걸 찾아서 왔을 수도 있지.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 그 할아버지가 여기 들어와서부터 대대로 우리가 여기 살았는데 중간에 특이한 분 계셨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의병장을 했어요. 의병장을 하고, 이제 고운동에서 호랑이를 잡은 것으로 유명했고, 의병장을 했는데 그 진주 감옥에서 투옥이 돼가지고, 내일이면 사형집행일인데, 오늘 탈옥을 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증거가 없어. 진주 감옥에 투옥됐으면 그 자료가 있을 거잖아. 그래 문서 기록 보존소에 갔는데 진주 감옥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가지고 그 시기에 것은 없어.” (P 씨)

P 씨는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전으로 고모 할머니라든지, 또 전해 내려오고. 내가 한 20년 전에, 그때 90 몇 살 되는 할아버지가 이런 증언들을 해주셨다고 한다. 그 할아버지는 ‘자기도 꼬마 때 보고, 듣고 그런 이야기들인데 고운동에서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군사훈련까지 하고 이랬’단다. 그런 이유로 증조 할아버지는 ‘절대로 신식교육 받지 마라. 그때만 해도 일제 교육,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까지는 학교 문턱에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학’이며, P 씨가 ‘집안에서 4년제 대학을 처음 갔’다.

“할아버지 때만 해도 고운동이 다 우리 땅이었어요. 등기부상으로도. 그 뒤에 할아버지가 동생들한테 제금 내주고, 갈라주고, 또 돈 되는 거는 다 팔아먹고 이사 내려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팔아먹고. 요지 한 천 평은 우리 삼촌 운전면허증 낸다고 그때 3천 원인가 주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이거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서 가지고 있던 걸 내가 2002년에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노후에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고운동천’이잖아요.” (P 씨)

P 씨가 고운동을 떠난 건 9살 때다. P 씨 가족은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깊은 산속에 있는 집들을 전부 소개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버리고’ 외공마을로 내려왔다. 외공마을에 살면서 덕산초등학교에 다닌 P 씨는 ‘집과 학교 사이에 있던 덕천강에 다리가 없어 비만 오면 결석’을 했다.

P 씨 내려오고 아무것도 없었지. (중략) 내가 9살 때 소개해 내려갔다 안 합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국가의 감시 눈길이 느슨해질 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지. 원래 원주민들은 다 나왔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아까 말한 그 밑에 있던 수몰된 가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 뒤에 전부 들어간 사람들이라. 그때 완전 다 비었지.

연구자 그때 내려와서 다시 안 들어가신 거예요?

P 씨 못 들어가지. 거기 있는 집을 뜯어다가 이 밑에 다시 옮겨 지은 거, 시골에서 다시 집을 갖다가 짓는다는 게. 그 당시에는, 내가 9살 때 그때만 해도 이사를 가면 어떤 식이나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울력으로, 돈을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 대들보 이런 것도 거기서 전부 해체를 해가지고. 한옥이니까 다 쪼아지고 와서 또 이렇게 조립을 해서 짓고 하는, 돈 하나도 안 들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해줬죠. 요즘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

1962년에 태어난 X 씨는 합천군 삼가면이 고향이다. 1980년대 초반 21살 때, 고운동에 살던 친형 ‘심부름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눌러 앉’았다. 친형은 X 씨보다 ‘한 1~2년 더’ 일찍 고운동으로 올라왔다. X 씨는 고운동으로 오기 전에는 지리산에 온 일은 없지만 친형은 ‘옛날부터, 세석평전 산장지기도 하고,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수양을 한다고 좋은 땅을 구입을 해’서 고운동에 살고 있었다.

2) 면담자들에게 고운동은?

고운동이란 마을 이름은 ‘최치원 선생 호를 따서 고운동인데, 최치원 선생 호를 따서 이름을 직접 지은 마을은 고운동밖에 없’(P 씨)단다. P 씨는 ‘최치원 선생이 거기서 사셨다는 전설은 있’지만 ‘그걸 확인할 길은 없고 이름만 있’다며, ‘고운동계곡에 보면, 이제 피리골이라고 있는데 최치원 선생이 피리를 불며 소요했다, 이런 식으로 전해져오는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쌍계석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건 없다. 신호웅 님에 의하면 배바위에서 고운동으로 오는 길이 ‘옛날 등산로’이다. 고운동에서 ‘삼신봉도 다’닌다고, ‘최치원 선생이 합천 해인사에서 쌍계사 넘어다니던 길’이 바로 여기인데 ‘운둔생활하다가 또 쌍계사 가고 싶으면 쌍계사 가다가 고운동에서 머물고 하룻밤 주무시고, 여기서 공부도 하’였단다.

지리산권에는 쌍계석문, 국보 제47호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세이암, 완폭대(翫瀑臺), 학사루, 함양 상림 등 최치원의 흔적이 많다.²⁹⁾ 최치원은 현실 세계를 초월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한 신라 말기의 문신, 유학

29) 『경남도민신문』, “고운 최치원 흔적 찾아 화개골로 떠나자,” 2018.11.20.일 자.

자, 문장가이다. 최치원의 호인 ‘고운’이 그대로 마을 이름이 된 ‘고운동’은 자연으로 귀의, 호리병 속의 별천지, 십승지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운적사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운적사가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계실 때 전라도 부안에서 부안 갑부가 정감록을 보고 십승지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십승지 중 하나라고, 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625를 겪고 나서 비결서 이런 걸 보고, 6.25때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이야기에 의하면 고운동에서는 사고로 사람이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제명을 누리다가 죽은 것이다. 하여튼 그 사람도 그런 소문을 듣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부안 부자가 자기 아들은 이사를 올 때 전주고등학교 3학년, 자기 딸은 전주여고 1학년, 애들 다 퇴학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땅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막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떼서 판 게 그게 지금 운적사라. (중략) 그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팔고 나갔고.”

P 씨가 어릴 때 고운동에는 ‘10가구 가까이 살았’는데, ‘마을이 한창 잘 나갈 때는 한 30~40가구가 거기서 자급자족했다’며 ‘거기 댐 수몰지에 논이 많았’고 ‘밭도 많았’다고 한다. X 씨에 의하면 상부댐이 건설되기 전 고운동에는 ‘다섯 가구’가 살았고 ‘농사짓고, 그냥 산에 들어와서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상부댐이 만들어진 후 ‘두 집이 이주’하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우리 땅이니까 집을 짓고 사는 거’고,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양수발전소에서 새 동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이주’하였다. X 씨에게 상부댐으로 수몰된 지역에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는지 물어보니, ‘문턱바위’라고 한다. 그러면서 물에 잠긴 고운동을 생각할 때 ‘이 밑으로 이리 걸어 다니면 갈대밭도 있고 참 좋았어요. 딱 올라오면 이 계곡 자체가 호리병이라고 이 안에 앉았을 때 짝 끌어올라오죠. 여기가 확 트여 있어요. 그런 어떤 경치라든지, 옛날에 그런 생각 하면 참 좋’다라며 그게 사라진 게 아쉽다고 한다. P 씨는 ‘어릴 때 거기 이십리 길을 걸어다니는 게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으며, ‘마을 입구에 바위가 큰 게 있었는데 그 바위 이름이 문턱바위’라고 ‘고운동’ 들어가는 문턱이라, 거기를 딱 들어서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내가 그거에 꽂혀가지고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게 나중에 다시 고운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지금 고운동에는 8가구가 살고 있다. 신호웅 님은 ‘고운동은 항상 사계절 자체가 다 아름답’다고, ‘겨울오면 겨울대로 아름답고 봄에 오면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 오면 또 여름대로’ 아름답다고 한다.

3) 국가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생각

X 씨는 산청 양수발전소는 건설될 수밖에 없는 시설이었다며 ‘일본시대부터 양수발전소가 생긴다는 말이 있었’고, 또 ‘반천’이라는 이름에서도 이미 양수발전소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연구자 일제시대 때부터요?

X 씨 빨간 거로 싹 측량을 해놨더라고요. 결국은 댐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반대한 거는 반천계곡에 댐이 들어서면 물이라든지 흐르는 자체가 많이 흘러가지도 않고 막아놓으면. 반천계곡이 억수로 아름답거든요. 아가지기하게,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결국은 반대를 해도 하는 건 하더라고 보니까.

연구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X 씨 언젠가는 들어선다고. 그래서 반천마을 이름이, 물에 반대로 흐른다고 반천이라고 지었다고.

산청 양수댐 건설에 대해 주민들도 반대했다. X 씨는 ‘반천 사람들이 올라가 데모도 하’고, ‘차도 막고 이랬는데 결론은 반천 동네에 뭐 이득 되는 거 그래가지고, 마을 상수도 놔’줬다고 한다. 그래서 신호웅 님은 ‘처음 할 때 그걸 잘. 어차피 반대만 할 게 아니고’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또한 양수발전소로 인한 ‘혜택’이 ‘우리하고는 별개로’ ‘사실상 관계없’는 지역에도 분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지역에 양수발전이 생기면 1년에 지금 주는 돈이,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살라하면 이제 어떤 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좋게끔. 시민들이 더 살기 좋게끔 하는데 이런 혜택이 지금 1년 8억인가 봐요. 원래

는 이제 5km 이내에 그 주위 사람이 그 8억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덕산하고 나누는데. 덕산은 사실상 관계가 없는데. 5km가 넘어서는 거예요. 땡 둘러 콤파스를 그었을 때 그런데 그 주위 안에만 썬야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해야 해요.” (X 씨)

X 씨는 면담 내내 ‘양수발전소는 물론 하나까 원자력이나 LNG 이런 거보다는 신선하’니 ‘양수발전소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옆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조금이나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다. ‘확실히 할 거는 더 혜택을 많이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하는 게 중요하다고, ‘좋은 조건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하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지만, 원자력보다 양수발전소가 생기면 훨씬 좋겠습니까? 오히려 더 깨끗하고 오염도 안 되고 좋지. 그렇지 방사능이라든지, 진짜로 원자력 없으면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까? LNG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것보다는 자연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니까’는 강조한다.



<사진 16> 산청양수 상부댐과 안내판



<사진 17> 고운동으로 올라오던 옛길 입구

산청 양수댐이 추진되던 때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P 씨는 ‘환경문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부산공추연인가 거기 초창기 멤버’였다. 그렇지만 ‘활동은 안 하고 조금씩 후원하고, 활동가들 밥이나 사주고 그래 하’면서 양수댐 반대활동에 참여했다. ‘지금은 아마 폐교됐을’ 초등학교에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그때 최열 씨도 와가지고 같이’ 했던 기억이 있다. P 씨는 ‘주민들은 크게 반대를 안 했’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다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아마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면’ 산청 양수댐을 건설하는 게 ‘힘들’었을 거라고 한다.

P 씨 우리집도 쓸 만한 땅은 다 수몰됐어. 근데도 우리 아버지도 굳이 그걸 반대 안 하고, 보상을 받으니까. 근데 보상금이 그리 좋지도 않았습시다. 수용이었거든 수용, 국가 관계 사업이라서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주겠다 그 정도, 감정을 물론 하긴 했지만. 그게 반대 운동의 한계였다고 생각하고요.

연구자 1 상부댐 말고 하부댐에도 수몰지역이 있었죠? 예치마을

P 씨 그렇죠. 예치마을도 마찬가지지.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 조금 가서 심하게 과격하게 가서 막 그걸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해준다 그런 소문도 듣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화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촌에서도 말발이 세고 이런 사람들 아니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와서 막 고함지르고 윗통 벗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애들이 또 잘 해줄 수도 안 있겠노. 그죠? 각개격파 쉽잖아, 단체로 이렇게 모이면 끼기가 힘들어도 개인적으로 데려와서 술 한잔 사주고 회유하기가 쉽지.

연구자 2 근데 아버님께서는 8대조부터 사셔서, 가족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왜 그 작은 보상금으로 그냥 하셨을까요?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셨을까요?

P 씨 그렇겠죠. 그게 국가사업이고.

연구자 2 개인이 반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P 씨 그렇죠. 결국은 수용이 돼서, 그거 해봐야

X 씨는 산청 양수발전소 상부댐을 건설하는 동안에는 ‘엄청 시끄러웠’는데, ‘건설되는 과정에서 폭파도 해야 되고 시끄럽’다고, ‘근데 어차피 그게 정해졌으면, 주민들이랑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도록 처음에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줬을텐데’라는 아쉬움을 표하며, ‘몇몇 사람들은 또 암암리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양수발전소가 만들어지는 동안 신호웅 님은 현장에서 ‘일은 안했’고 ‘반천, 청학동 사람들은 일하러 왔’다고 한다. P 씨는 구례양수 반대활동에 대해 ‘여름에 가장 전기 수요가 많을 때, 그걸 침두부하라 하는데 그 잠깐 동안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름에 조금 에어컨 덜 켜고, 조금 덥게 지내면 굳이 산을 파헤쳐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래 안 해도 된다’(최열)는 논리는 ‘사실 잘 안 먹여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요새,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이거 조금 적게 틀고 좀 참아라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니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다고 한다.

4) 막상 살아보니

산청양수에 반대한 환경단체들은 안개일수에 따른 생태계 변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현실은 어떤지 물어보니 P 씨는 댐이 생기고 ‘모기가 많고’, ‘후덥지근’하다고 한다. 하부댐이 있는 ‘예치마을 사람들’이 ‘그거는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최세현)다고 하니, P 씨는 ‘양수발전소에서 주민들 지원사업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P 씨 그게 이제 여름 되면 덥고, 옛날에 그 고운동이라는 곳이 해발 700m인데 여름에 모기가 없었거든요. 댐 생기고 초창기에도 모기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문 확 열어놓고 잤거든. 근데 지금은 모기가 많아요. 모기 많고 내가 밭에 풀 매다 보면 갈따구 이런 거 되게 많아 우는 게 그리고 여름이 좀 후덥지근하게 덥고, 전에는 정말 쾌적했거든. 700m가 제일 사람 살기에 쾌적한 곳이다.

연구자 안개일수도 실제로 더 증가한 걸까요?

P 씨 그런 것도 증가한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안 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최세현 근데 하부댐에서는 예치마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개일수로 농사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P 씨 그런데 양수발전소에서 주민들 지원사업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니(최세현)가 들었던 그 사람의 성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안개 피해에 대해 X 씨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기가 안개가 많이 낀다 이런 거는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안개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며, 안개보다는 ‘양수댐이 생기면 그 주위가 더 워’진다고 한다. ‘3도 이상, 2도나 3도 정도 틀려요. 올라’간다고 그 이유는 ‘물을 가뭄 놓기 때문에 방사열이 있어가지고 더워져요. 우리는 선풍기 없이 살다가 발전소에 물 채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선풍기를 샀’단다.

양수댐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역 자금 유입, 일자리 창출, 활력지원금, 지방세 외 수입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최고도로 달할 것’이라고 주장³⁰⁾하는 것에 대해서 P 씨는 ‘내 기억으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밥도 먹고 하니까 좀 나아지고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이야 오히려 그 먼지 나고 흙탕물 내려오고 안 좋은 게 더 많지. 그거는 이제 회유하기 위해서 마을 지원 사업하고 해주겠다 이런 말을 당연히 안 하겠어요. 요즘 혐오 시설 이런 거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나는 그거는 좀 거래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X 씨는 ‘처음 할 때 그걸 잘. 어차피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들어선다면은 제 생각에는 양수발

30) 『봉성신문』, “기고문, 구례 양수발전소 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2023. 7월호 4면. “양수발전소 건설은 약 1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60% 이상을 지역자금으로 유입할 수 있고 건설공사에 따른 연 6,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발전소 주변 지역 활력지원금 약 450억 원, 지방세 외 수입 14억 원 증대 등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최고도로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한정된 자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민 모두가 힘을 쓰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에서는 투자유치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창호 구례군의회 의원)

전소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옆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조금이나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예를 들어서 4km 이내에 전기세를 몇 % 깎아준다든지’라는 구체적인 제안도 한다. 지금은 양수발전소 주변은 이런 혜택이 없고 ‘고압선이 가는 데는 그거는 이제 몇 m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세를 좀 할인 해 주는 것 같’다고 말한다. 고운동은 ‘지원 받는 게 별로 없지요. 동네가 작 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뭐 해주겠지.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사소한 일이라도 사소하게 잘 살펴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끔 해주면 좋을’거라고 덧붙인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 지원도 없이 살아가요. 지금도 여기 제초작업을 해달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걸 안 해주는데. 내 생각은 만약에 한다면 마음대로 할 것이 된다면 동네 사람이 운동하고 그럴 돌레길 한 개 만들어달라 이거야.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고여 있는 물을 갖다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물이 좀 탁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물이 많이 탁 해지고 물이 썩을 수도 있어요. 흐르는 물이 아니고 가뭄 났기 때문에 맨날 로테이션으로 돌리니까. 여기 는 물을 맑히는데 사실상 물을 맑히지 않아요.” (X 씨)

물이 예전보다는 안 좋다고 걸 뭘로 느끼냐는 질문에 X 씨는 ‘아니 물이, 저 많은 물을 받으라하면 한번에 못 받잖아요. 그럼 물이 계속 고여 있다 아닙니까. 아무리 흘러간다고요. 물이 자꾸 자꾸 보태야, 물이 흘러 가야 깨끗한 물이 되는데 안 나가고 그대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니까 물 수질 자체는 억수로 안 좋’다고 강조한다. 냄새는 나지 않지만 ‘온도가 올라가’고, ‘댐 자체의 물은 수질이 엄청 떨어진 물’이고, ‘하부댐 밑 으로 물이 좀 흘러가면은 그쪽 물하고, 고운동에 안 흘러보낸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 그렇지만 X 씨는 ‘우리는 조용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와 사는데, 댐이 들어섬으로써 여러 가지로 사람들도 많이 다니 고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들어서니까 사람 살기가 훨씬 편리’하다고 한다. 고운동에 상부댐이 들어서면서 전기가 올라왔고, 차가 다니는 길도 생겼다. X 씨는 상부댐으로 관광객이 더 많아졌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 왔다갔다 하니까’, ‘많다고 봐야 안 되겠’냐고 했지만 ‘여기 와서는 산에 가는 곳은 없 고. 여기서 반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가요. 모르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5. 산청양수 현장 답사

상부댐이 위치한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의 지명유래에 대해서 산청군청 홈페이지에는 ‘냇물이 번쩍인다고 번 내라 하다가 반천(反川)이 되었으나 물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여 번내라고도 하였다. 상부댐 건설로 물이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이 지명유래와 우연하게도 일치된다³¹⁾’라고 기록한다. 상부댐이 건설되기 전 고운동 주민들은 반천마을에서 배바위를 돌아 고운동으로 올라갔다.



<사진 18> 배바위 초입에 설치된 고운동 등산안내도



<사진 19> 고운동 등산로에 게시된 반달곰 현수막

31) 『산청군청』 (<https://sancheong.go.kr>) 마을지명 유래



<사진 20> 배바위 (2024년 5월 13일 드론 촬영)

연구자가 X 씨에게 배바위 근처 상수리나무를 이야기하며 수몰된 고운동에 기억에 남은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를 물어보니 ‘엄청 큰 나무들이 있었’다고 한다. 2012년 6월 보호수로 지정된 상수리나무는 가슴 높이 둘레가 600cm이고 나이는 400년이다.



<사진 21> 보호수(상수리나무) 안내판



<사진 22> 상수리나무

상부댐 인근, 고운동으로 올라간 등산로 입구에서 배바위와 상수리나무를 확인한 후 산청양수 홍보관을 방문했다. 답사 당일 홍보관은 닫혀있었다. 통화 결과 1달 반 전(4월 초로 추정) 폐쇄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전에는 학생들이 방문하였으나, 코로나 19 이후에는 학생 방문이 줄어들고 이용객이 거의 없어 회사 차원에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한다.³²⁾ 산청군 홈페이지에는 ‘산청양수발전소는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이면 지나가다 꼭 한번 들리는 관광명소로 산청군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청양수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 운영, 사회공헌 활동 전개, 윤리경영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리모델링으로 최첨단 3D영상관,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는 지역관 등 지역민들에게 한발 가까이 다가가며 아이들의 흥미를 제공하고 학습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배움의 관광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 폭 25m 길이 116m 높이 53m의 웅장한 지하발전소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 발전소의 대표적 예입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2024년 5월 29일 접속).³³⁾

32) 2024년 5월 13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담당자(070-4831-2141)와 B 통화 결과

33) <https://www.sancheong.go.kr/tour/selectTourView.do?key=587&ctgryNo=2&tourNo=169>



산청양수발전소홍보관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1088번길 20-18

대표전화 : 070-4831-2141

홈페이지 : <http://www.khnp.co.kr>

부대편의시설



<그림 10> 산청양수 홍보관 홍보 이미지 (산청군청 홈페이지, 2024년 5월 29일 접속)



<사진 23> 산청양수 홍보관 입구



<사진 24> 하부댐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산청홍보 홍보관을 밖에서 본 후 하부댐으로 이동하였다. 하부댐은 철망에 둘러싸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저수지 물 위에 태양광 패널이 있었다.

참고자료

『산청 양수발전소 상부댐 건설 예정지 생태계 부분 현장 확인 보고서』 (1994), 환경운동연합.
 『제11회 생태기행 지리산 고운동(자료집)』 (1996.05.19.), 진주환경운동연합 산림생태분과.
 『전기저널』 “산청양수발전소 준공과 그 의의,”(2002.01), 주성철(한국동서발전), 대한전기협회.
 『환경아카이브폴숲』 (ecoarchive.org)
 박성률, 2022, “양수발전소 건설의 문제점,” 『현장과광장』 제6호, p. 243-256.